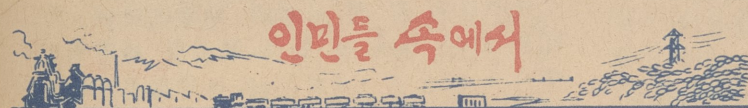
소년단

1962.3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2. 원수님의 깊은 사랑
해'빛보다 따사로워
우리 희망 날개 펴고
자유로히 날아 간다
너는 륙군 나는 해병
모두 모두 자라나니
가슴마다 피는 꽃을
우리들은 자랑한다

3. 붉고 붉게 타번지는
삼천만의 념원으로
나도 나도 싸우리라
조국 통일 그날 위해
우리 당의 혁명 전통
가슴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내 조국을
길이 길이 빛내리라!

소년단 1962년 3호 내용

친아버지의 사랑으로

최 영 옥

재작 년 봄 진달래와 살구꽃이 만발하고 벚꽃도 피기 시작한 4월 29일이였어요. 그 날은 금요일이였던 것 같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동복을 주시고 봄이면 하복을 주시는 우리 당과 정부에서는 그 해에도 5. 1 절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새 학생복을 내주었습니다.

그 날은 내가 새로 탄 학생복을 입은지 사흘 째 되는 날이였어요. 언니는 나더러 5. 1 절 명절날에 입자고 했으나 나는 참지 못하고 학생복을 탄 그 날로 입었습니다.

깃이 동그랗고 맵시 있는 웃옷과 짙은 곤색 천을 곱게 주름 잡아 보기만 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치마—나는 그 새 교복을 언니처럼 5. 1 절까지 안 입고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새 옷에 어울리도록 넥타이도 제일 새 것, 리봉도 가장 고운 것을 골라 달고 동무들과 함께 공원에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옆에 와 멎더니 젊은 아저씨 한 분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였어요.

《너희들의 새 교복이 아주 좋구나. 사

진 한 장 찍어 줄가?》.

우리는 너무 좋아서 손'뼉을 치며 달려 갔습니다.

《그래 그래, 찍어 줄테니 나와 함께 가자. 어서 올라 타거라》.

나와 정순이 그리고 남학생 두 명을 태운 승용차는 거리 한복판으로 기분 좋게 달렸습니다.

《아저씨, 어디에 가서 찍나요? 》.

《좋은 데 가서 찍자, 가 보면 알아 》.

《찍으면 꼭 한 장씩 주시지요?!》.

《주구 말구.》

자동차는 속력을 늦추며 큰 문 안으로 들어 섰습니다. 머리 우에는 움 돋기 시작한 버드나무 가지가 드리우고 길 량쪽에는 노란 개나리꽃이 한창이였어요. 그 개나리꽃 울타리 넘어 잔디밭에는 민들레와 병아리꽃이 드문드문 피여 있고 그 사이로 흰 비둘기들이 서로 속각거리며 모이를 찾고 있었어요.

차가 좀 더 올라 가니 활짝 핀 살구 꽃과 진달래가 안겨 오고 그 저쪽에는 포플라인지 백양나무인지 알 수 없는 키 높은 나무들이 빽빽히 서 있었어요.

나는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나요?》.

《이제 알게 될거다. 조금만 더 가자 》.

자동차는 드디여 2 층 집 뒤 꽃밭 옆에서 멎었습니다.

《자 저 쪽으로 가자 》.

아저씨가 앞장 섰습니다. 우리는 아저씨를 좇아서 화단을 에돌아 벤취들이 놓인 곳으로 나왔습니다.

살구나무 밑에 놓인 저쪽 벤취에서는 한 분이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보통 스텐칼라 양복 차림을 하신 그 분의 뒤'모습을 나는 무심코 바라 보았습니다. 나는 그 때까지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 것도 모르고 사진 찍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 분은 우리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셨는지 보시던 신문을 내리우며 이쪽으로 몸을 돌리시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놀랐어요! 꿈인가도 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왜 잘못 보았겠습니까! 환하게 웃으시는 그 모습!…

우리 집 벽에 언니와 나와 꽃으로 정성껏 둘레를 받쳐 높이 모신 초상화 앞에서 아침마다 《학교에 다녀 오겠습니다.》 인사드리는 김 일성 원수님을 왜 몰라 보았겠습니까!

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손 짓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네 명은 저마다 힘껏 달려 갔어요. 그리고 원수님 앞에 가서 차렷하고 소년단 경례를 드렸습니다.

《원수님! 안녕하십니까?》

《너희들도 공부를 잘 하느냐?》

원수님은 우리들의 어깨를 둘썩둘썩 안아 주시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새 옷들을 다 입었구나. 어디 좀 보자. 너희들의 새 옷차림을 보고 싶어서 데려 오라고 했는데… 》.

원수님은 우리의 머리를 쓸어 주시고 비뚤어진 넥타이와 리봉도 바로잡아 주시면서 여러 가지로 물으셨습니다.

《새 옷을 다 입으니 어떻냐? 옷 맵시가 작년 것보다 좋아진 것 같은데 너희들도 마음에 드느냐?》.

원수님은 꼭 친 아버지 같았습니다. 우리를 하나 하나 친 아들 딸처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고 저저마다 대답했습니다.

《금년 옷은 색이 더 곱고 깨끗합니다 》.

《꾸겨지지도 않습니다 》.

《몸에 꼭 맞습니다, 원수님!》.

원수님은 남학생들을 앞뒤로 돌려 세우시며 깃이 맞느냐, 앉을 때도 설 때도 바지 입은 게 편안하냐, 단추를 단단히 달았더냐라고 차근차근 살피시다가 한 학생의 손을 잡아 당기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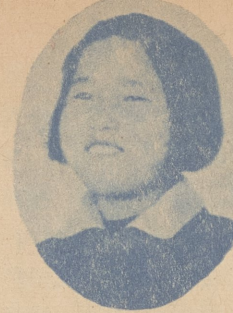
《너, 손이 어지러운 걸 보니 꽤 작란이 심한 모양이구나.》 하시면서 아버지처럼 크게 웃으셨습니다.

원수님은 내 옷도 만져 보시다가 아직 남아 있는 상표 딱지와 실'밥을 꼼꼼히 뜯어 주시였습니다. 새 교복을 타온 날 나는 너무 좋아서 상표를 대강 뜯고 그 대로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수님은 《치마 주름이 잘 잡히느냐?》

영숙

영옥

영실

영희

하시며 손수 꺾어도 보셨어요.

《래년엔 더 좋은 옷을 입게 될 게다. 우리 나라에서는 해마다 더 많은 천이 나오게 되는데 공장의 언니, 누나들은 더 훌륭한 천을 짜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양복 만드는 어머니, 아주머니들도 더 좋은 옷을 만들려고 연구하신다. 너희들도 절제고가 뭔지 알지?》.

우리의 옷을 다 살피시고 난 원수님은 또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들은 1 년에 운동화를 몇 켤레 신느냐?》.

우리는 네 켤레라고도 대답하고 다섯 켤레라고도 대답했습니다.

《그래 뒤'축을 꺾어서 신거나 아무렇게나 끌고 다녀서는 안 되지만 운동도 잘 하고 무용도 잘 해서 신이 해지는 거야 좋은 일이지 》.

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였어요.

한달에 연필은 몇 자루면 되느냐, 연필속이 부러지지 않느냐, 교과서는 모두 받았느냐, 상점에 공책이 많이 있더냐, 지우개가 잘 지워지느냐…

또 어느 써클에 들었느냐, 어느 영화가 제일 재미 있더냐, 앞으로 무엇이 될터이냐까지 물으시고 나서 이번에는 집의 일을 묻기 시작하시였습니다.

내 차례가 되였어요.

《아버지는 뭘 하시느냐? 공장에 다니시느냐, 사무 직장에 나가시느냐?》.

《…》 나는 인차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원수님은 나를 자세히 들여다 보시였어요. 방금까지 환하게 떠 있던 웃음이 원수님의 얼굴에서 살아졌어요. 원수님은 눈을 좁히시며 낮은 음성으로 다시 물으시였습니다.

《왜? 아버지가 안 계시느냐?》.

《네…》.

《어머니는?》.

《어머니도 돌아 가셨어요 》.

《어머니도?!…네 이름이 뭐지? 그래 최 영옥이…》.

원수님은 내 손을 꼭 잡아 주시며 말씀을 계속하시였어요.

《영옥아!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어떻게 돌아 가셨니?》.

나는 내 손을 어루만져 주시는 원수님의 크고 따뜻한 손을 내려다 보며 다 말씀 드렸어요. 나는 누가 물어도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 가신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더 나니까요. 그렇지만 원수님이 물으시기 때문에 다 말씀드렸어요.

아버지는 전쟁 때 고무 공장에서 밤 작업을 하다가 미국놈들의 폭격에 희생되였고 그 후 어머니는 식료 가공 공장에 다니면서 우리를 길러 주셨는데 1959년 5월에 어머니마저 돌아 가셔서 우리 딸 4 형제는 고아로 되였던 것입니다.

원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물으셨어요.

《영옥아, 어머니가 돌아 가신 지 1년이 되였는데 그 동안 어떻게 살았니? 지금 누구하고 같이 사느냐?》.

《우리 형제끼리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두 살 맏이인 언니가 밥도 짓고 빨래도 합니다. 언니가 학교에서 늦게 올 때는 나도 합니다. 내 아래 동생 영실이는 열 두 살인데 그 애도 밥을 지을 줄 압니다 》.

원수님은 나를 더 가까이 끌어 당기시

였습니다.

《너희들끼리… 친척도 안 계시냐?》.

《네… 그래서 어머니가 다니던 공장에서는 아주머니 한 분을 보내 주어서 얼마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는 주인이 제대되여 원산으로 배치 받았기 때문에 그리로 갔습니다. 그 때 맨 아래 동생 영희를 그 아주머니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우리 형제에게 아빠트 한 세대를 주시고 매달 보조금을 주시는 당과 국가의 고마움에 대하여, 또 추운 날이나 바람세 사나운 날이면 탄'불이 죽지 않겠느냐고 우리 집 아궁이를 돌봐 주시는 이웃집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에 대하여, 그리고 두부와 반찬'거리를 들고 우리를 찾아 주시는 어머니의 직장 아저씨, 아주머니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그래… 어쨌든 비둘기 같은 너희들 셋이서… 밥도 끓이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용타! 너희들끼리 세간살이를 하면서 학교에 다닌단 말이지… 참 용타…》.

내 손을 어루만지시며 떠염떠염 말씀하시는 원수님의 음성은 좀 갈리는듯 했어요. 원수님은 잠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다가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셨어요. 그리고 입속 말로 물으시였습니다.

《영옥아, 너희들이 사는 아빠트 주소가 어디지?》.

원수님은 내가 대답하는 대로 수첩에다 《중구역 중성동 2반 3층 330 호실》이라고 쓰신 후 그 밑에 우리 형제들의 이름을 큼직큼직하게 적으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수첩을 접으시면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였어요.

《영옥아, 너 동물원에 가 보았니? 갔댔어?! 그럼 범도 사자도 코끼리도 보았겠구나 》.

나는 그네를 뛰는 원숭이도, 걸어 다니며 과자를 내라고 조르는 곰도, 체바퀴를 돌리는 다람쥐도 보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 옆에 서 있던 아저씨가 또 사진을 찍었습니다.

원수님은 다시 눈'가에 웃음을 띄우시며 또 물으셨어요.

《또 무엇을 봤느냐?》.

그 때 열 네 살이던 나는 아무 것도 모르고 동물원에서 처음으로 본 짐승들에 대하여 손짓 몸짓을 해가며 원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2 년이 지난 지금은 원수님이 그 때 왜 동물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짐승들의 흉내를 내며 대답하는 것을 왜 그처럼 찬찬히 보시며 조용히 웃으셨는지를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수님은 아버지, 어머니 이야기를 하고 난 나를 기쁘게 해 주시려고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이제 크면 더 잘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수님은 우리들에게 소년 신문을 보느냐고 물으시고 이야기를 남조선 문제로 돌리시였습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려지고 있느냐?》.

우리는 서로 말끝을 채 가면서 리 승만이가 쫓겨 났다는 것, 그렇지만 미국놈들이 그 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곳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들의 고생은 이전과 마찬가지라는 것, 또 어린이들도 리 승만이 때와 같이 학교에 못 가는 아이들이 많고 구두닦기나 담배 장사를 하면서 거지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맞았다, 꼭 맞았다. 녀희들은 신문도 잘 보는구나 》.

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근심스러운 빛을 띄우시며 계속하시였어요.

《남조선 어린이들은 불쌍하기 짝이 없다.… 미국 놈들만 쫓아 내면 우리 나라는 통일되고 그 때엔 그 애들에게 구두 약통

과 담배통, 깡통 대신에 책가방을 메워주고 너희들처럼 이렇게 봄 가을마다 새 교복을 입힐 수 있는 데… 그 애들도 너희들처럼 마음 놓고 공부하고 뛰놀고 해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은 이런 생각을 해서라도 학습을 잘 해야 한다. 너희들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다…》.

원수님은 특별히 나의 손을 다시 잡으시며 타일러 주시였어요.

《영옥이도 공부 잘 해야 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

나는 꼭 최우등생, 모범 소년단원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 서시고 우리의 어깨를 하나하나 안아 주시며

《이젠 가 보아라, 좋은 봄날인데 어서 가서 뛰여 놀아라.》 하시면서 웃으시였습니다.

《원수님! 안녕히 계십시요 》.

나는 소년단 경례를 드리고 나서도 원수님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원수님은 우리가 돌아 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시며 손을 흔드시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승용차를 타고 원수님의 댁을 나섰습니다. 자동차가 거리를 달릴 때 나는 오가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원수님을 직접 만나 뵈옵고 그처럼 사랑 받은 나를 부러워하며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되였어요. 나는 하늘 높이 훨훨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나는 우리 집으로 뛰여 올라 갔습니다. 언니와 동생에게 이 기쁨을 알리려고요. 그런데 아무도 없었어요. 나는 그 때에야 언니는 마스껨 련습을 가고 동생도 써클 련습에 갔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원수님의 초상화 앞에 가서 아까처럼 경례를 하면서 마음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였어요.

《원수님, 고맙습니다! 꼭 최우등생, 모범 소년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있은 일을 처음서부터 하나하나 생각하며 원수님이 어루만져 주신 내 손을 들여다 보고 또 보았습니다. 나는 손'등을 들여다 보다가는 손'바닥이 우로 오게 뒤집고 또 손'등이 보고 싶어 뒤집기를 몇 번이고 거듭하였어요.

나는 너무도 기뻐서 점심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합창을 지휘할 때처럼 두 손으로 박자를 잡으며 김 일성 원수님에 대한 노래를 아는 대로 전부 불렀어요.

그리고 원수님이 남조선 어린이들을 걱정하시며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는 부모가 없지만 얼마나 행복한가를 가슴 뜨겁게 느꼈습니다. 우리 형제가 만일 남조선에서라면 다리 아래서 자고 거지가 되여 헤매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과 국가에서는 우리들에게 그처럼 좋은 문화 주택을 주시고 매달 보조금도 주시고 또 어머니가 다니던 직장의 아저씨, 아주머니들, 이웃집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우리를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끝 없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언니나 동생인 줄 알고 문을 열었어요. 문 밖에는 뜻 밖에도 아까 우리를 태워가고 태워다 준 그 아저씨가 빙그레 웃으며 서 있었어요.

《아이! 아저씨 오셨습니까!》.

《원수님이 영옥이네 집에 가 보라고 하셔서 왔다 》. 그 아저씨는 방 안으로 들어 오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원수님은 영옥이를 보내고 나서 계속 너희 형제들을 걱정하시며 오침도 못 하셨단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알아 오라고 하시였다…》.

그리고 아저씨는 방 안과 부엌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적어 가지고 갔습니다.

저녁에 마스겜 련습을 갔던 언니가 돌아 왔습니다. 언니는 어디서 들었는지 내가 원수님을 만나 뵙고 왔다는 것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곧이 들리지 않아서 이렇게 뛰여 왔어. 정말이냐?》 언니는 숨이 차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아까 낮에…》 나는 말을 더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가 돌아 오면 이야기하려고 준비해 둔 말도 그 때는 못 하고 말았어요. 언니가 나를 꽉 그러안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날 밤 나는 언니와 동생에게 원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또 하였습니다. 언니는 마스겜에 쓰고 나갈 꽃 모자를 만들려고 치마 앞에 색종이를 펴 놓았으나 내 이야기를 듣느라고 그냥 종이를 만지작 거리기만 했습니다.

나보다 두 살 아래인 영실이는 《언니야, 나도 언니만 해지면 원수님을 만날 수 있니?》 하며 내게 매달렸습니다.

《영옥아, 넌 정말 좋겠구나! 나도 원수님을 만나 뵈였으면!…》 언니도 무척 부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수님의 초상화를 우러러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습니다.

《공화국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다 원수님을 직접 만나 뵙겠니. 원수님은 나라 일을 보시느라고 바쁘실텐데… 영옥이, 네가 원수님을 만나 뵌것만해도 너무나 영광이지! 우리 4 형제가 다 뵌거나 마찬가지야! 그렇지? 영실아! 원산에 가 있는 영희도 알면 손'벽을 치며 좋아 할게다…》

이러고 있노라니 밤 열시 쯤 되였습니다. 그때 또 노크 소리가 나며 문 밖에서 귀에 익은 음성이 들려 왔습니다.

《영옥이 있느냐?》

《언니! 아저씨야! 그 아저씨!…》

나는 뎀벼치며 문을 열었습니다. 나는 잘못 듣지 않았어요. 그 아저씨가 또 오신 것이였습니다.

《너희들 3 형제가 다 있구나, 됐다. 원수님이 지금 너희들을 전부 데려 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어서들 가자》.

영실이는 기뻐 날뛰였지만 언니는 어쩔 줄을 몰라 방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언니는 부엌에 나가 손을 씻고 들어 와서 5.1 절에 입겠다고 걸어 두었던 새 교복을 갈아 입었습니다.

우리 3 형제를 태운 자동차가 원수님의 댁 앞에서 멎자 원수님의 가족들이 모두 마중 나오셨습니다.

《원수님이 2 층에서 기다리신다. 어서 올라 가자 》.

우리가 층계를 절반쯤 올라 갔을 때였어요.

《오— 영옥이랑 왔느냐 》.

원수님의 음성이 머리 우에서 들렸어요. 우리는 발'걸음을 멈추며 원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원수님은 부드러운 웃음을 띄우시며 우리에게로 내려 오시더니 맨 먼저 언니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으시였습니다.

《네가 영숙이구나…동생들 데리고 살림을 하면서 학교에 다니느라고… 힘들었지?!… 이거 손이 좀 텄구나…》.

언니는 갑자기 원수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우지 말아, 우지 말아… 세대주가 울면 되나… 어서 그쳐… 우지 말아…》.

원수님이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언니는 자꾸 울었어요.

나는 그 때 나보다 큰 언니가 왜 울가? 원수님이 저렇게 울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자꾸 울가? 하고 생각하며 흔들리는 언니의 어깨와 그 어깨를 쓸어 주시는 원수님의 손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때로부터 2 년이 지나서 그 때의 언니만큼 큰 나도 지금은 언니가 그 때 왜 울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수님과 함께 2 층으로 올라 갔습니다.

원수님은 우리를 앉히고 또 하나하나 머리를 쓸어 주시면서 우리들이 살아 온 이야기를 자세히 물으시였습니다. 원수님의 품에 안겨 울고 난 언니는 친아버지 앞에서처럼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아버지 앞에 온 것 같았어요.

원수님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시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너희 형제들끼리 살겠니? 그렇지 않으면 초등 학원에 가는 게 좋니?》.

언니가 먼저 초등 학원에 가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원수님은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시였습니다.

《영옥인 어떠냐?》.

나도 학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원수님은 또 영실이에게로 가셔서 머리를 쓸어 주시며 말씀하시였어요.

《너도 언니들과 같이 학원으로 가거라. 학원에 가면 밤에는 언니들과 따로 자지만 낮에는 언니들을 늘 볼 수 있고 또 한 식당에서 언니들과 함께 밥 먹고… 좋지?!》

영실이는 어리광 부리는 애처럼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다. 학원에 가서 살림 걱정 말고 마음껏 공부하거라. 지금까지 어린 것들이 살림살이를 한 것만 해도…》

아버지 원수님은 잠간 말씀을 끊으셨다가 계속하시였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9월 달 새 학년도를 기다릴 것 없이 래일 모레 5.1절이나 쇠고서는 곧 학원으로 가도록 하자. 그리고 원산에 가 있는 영희도 데려 오는 게 좋지?! 보고 싶을텐데!》

이번에는 나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영희도 데려 오자》.

《그게 좋겠어요》. 어머니도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원수님은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 가서 우리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

우리는 저녁을 먹고 왔다고 몇 번이나 말씀 드렸지만 아버지 원수님과 어머니는 우리를 데리고 아래'방으로 내려 갔습니다.

《자, 어서 나앉아라, 영숙이도 영옥이도… 우리 영실이는 뭘 좋아 하나? 자, 이리 나앉아라 》.

원수님은 우리들의 손목을 끌어 밥상 둘레에 앉히고 어서 많이 먹으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음식 그릇들을 우리 앞으로 끌어다 놓으시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원수님, 어머니, 원수님의 집안 식구들과 함께 우리 형제가 한 상에 빙 둘러 앉았던 그 즐거운 식사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에 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너희들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우리 유격대가 일본군과 경찰놈들을 때려 부시고 장백산 어느 골짜기를 지나 가댔는데 멀리에서 어린애들의 울음 소리가 들려 왔어. 그래 거기에 가 보니 다섯 살 나는 처녀애와 세 살 나는 사내애가 외딴 집에서 울고 있더구나. 다섯 살 난 애에게 물어 보니까 일본 경찰놈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잡아 갔는데 돌아 오지 않는다는거야. 그래서 그 애들을 외투로 싸안고 와서 아동단에서 길렀는데 커서 학습도 잘 하고 총도 잘 쏘는 용감한 빨찌산 대원이 됐단다. 너희들도 학원에 가면 학습을 더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

다.

나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 오누이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원수님은 그 옛날에 그 오누이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4 형제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더 뜨겁게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원수님의 아들딸들과 함께 그림책도 보고 학습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친형제처럼 놀았습니다.

어느덧 열 한 시가 퍽 넘었어요.

2 층으로 올라 가셨던 원수님이 내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이젠 돌아 가서들 자거라. 봄철에 어린 것들이 곤할텐데… 또 너희들은 요새 5. 1절 맞이 준비를 하느라고 낮에도 종일토록 련습을 하지?》.

원수님은 우리 3 형제를 한 아름에 안으시고 말씀을 계속하시였습니다.

《래일은 학교에 가고 모레 5. 1절 날은 우리 집에서 같이 명절을 쇠자. 행사가 끝나면 어디 가지들 말고 집에 있거라》.

원수님은 우리를 현관까지 데리고 나오셔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였어요.

《행사가 끝나면 꼭 집에들 있거라. 이 아저씨를 보낼테니까》.

자동차는 단숨에 우리 아빠트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려는데 아저씨도 큰 보꾸러미를 들고 내리면서 함께 올라 가자고 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보꾸러미를 우리 방에 들여 놓아 주면서 말했습니다.

《원수님이 너희들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네 형제는 학원에서 함께 공부한다

보자기 속에는 학용품, 닭알, 사과, 그 외에도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날 밤, 나는 전등을 끄고 자리에 누워서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아까 낮에 있은 일, 또 이제 원수님네 댁에 갔던 일이 자꾸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눈을 감아도 원수님의 모습이 뚜렷이 보이고 원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래일 모레 5. 1절 명절 날에 또 원수님 댁에 가서 놀 생각을 하니 정말 기뻐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나만 자지 않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까딱하지 않던 언니가 이 쪽으로 돌아 누우며 입속말로 물었습니다.

《영옥아, 너 자니?》.

《아니》.

《넌 뭘 생각하니?》

《난 5. 1절 날을 생각해, 또 원수님한테 가서…》.

《너. 원수님이 왜 5. 1 절 날 또 우리를 오라고 하셨는지 아니?》.

《?…》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나를 끌어 안더니 목이 메여 한마디 한 마디씩 말했어요.

《원수님은 말이야… 우리끼리 명절을 쇠기가 섭섭할가봐… 다른 집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 생각이 날가봐… 원수님은 아버지야!… 정말… 우리 아버지야!…》

방 안은 어두웠지만 나는 언니의 눈에 글썽하게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우리 세 형제는 5. 1절을 경축하는 군중대회와 시위 행진이 끝난 오후 1시 경에 우리를 데리려 온 자동차를 타고 또 원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원수님은 5. 1 절 행사에 나가셔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수님의 아들 딸들과 쌍그네도 타고 염소를 놀려 주기도 하면서 즐겁게 놀다가 원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원수님의 아들 딸들과 손목을 잡고 뛰놀았습니다. 또 식물원에 가서 꽃 구경도 하고 연못의 잉어도 보았어요.

손'벽만 쳐도 몇 마리의 잉어가 모여 왔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야— 저거! 저거!》 하며 자꾸 손'벽을 치니까 원수님의 아들이 내 팔을 잡아 당기면서

《누나, 내가 잉어 밥 가져와요. 그걸 주면 다 와요.》 하더니 집으로 달려 가서 누에 번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뿌려 주니까 정말 잉어들이 씨글씨글 모여 와서 뒤채고 솟구치고 하면서 번데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밖에도 재미 나는 일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어요.

저녁 다섯시쯤 되였을 때 깜한 승용차가 들어 왔습니다. 원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 차라고 우리에게 알려 주었어요. 우리는 모두 손을 잡고 달려 갔습니다.

원수님은 차 안에서 웃으시며 우리에게 손짓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차에서 내리시자 《너희들 잘 놀았느냐.》 하시며 우리들의 머리를 쓸어 주시고 좀 있다가 영화구경을 하자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원수님은 영화실로 가시기 전에 우리를 모두 부르시고 영실이의 손을 이끄시며 영화실로 들어 가시였습니다.

그 때 위생복을 입은 선생님이 나무 쟁반에 사과를 담아 가지고 들어 와서 원수님 앞에 놓았습니다.

원수님은 방 안을 한번 둘러 보시더니 사람 수만큼 사과를 전부 쪼개서 한 쪽씩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원수님도 한 쪽만 잡수시였습니다.

그 날 돌린 필림은 히마라야 산맥에 대한 중국 영화였는데 자막이 없었습니다. 원수님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매 마디마다 해설해 주시였어요. 원수님의 딸이 입속으로 내게 말했습니다.

《외국 영화 돌릴 땐 아버지가 늘 번역원 노릇을 하신단다.》

영화가 끝난 후 원수님과 또 한상에 둘러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 날 밤 원수님은 우리를 보내 주시면서 말씀하시였습니다.

《…그럼 수속을 해 줄 테니까 래일 모레 학원으로들 가거라. 가서 공부를 잘해야 한다! 훌륭한 사람들이 돼야해!》

자동차가 떠날 때 원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주시였습니다… 집에 돌아 온 우리는 그 날 밤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였습니다. 언니는 원수님이 보내 주신 사과, 닭알, 과자 등을 보자기에 싸면서 나와 영실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뻐스 타고 지—기 가자.》

《언니 어디 가자니?》 영실이가 매달리면서 물었어요.

언니는 대답하지 않고 웃기만 하면서 어서 뻐스 정류소에 나가자고 하는 것이였어요.

우리는 언니를 따라 뻐스에 탔어요. 뻐스가 팔동교를 건너 서자 언니는 내리자고 했습니다.

그 때에야 나는 짐작이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묘가 팔동교에서 멀지 않은 언덕에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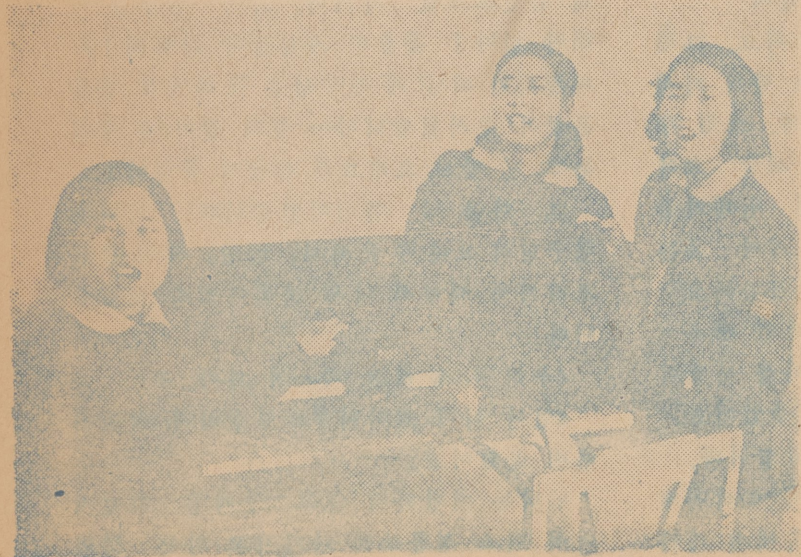
우리는 그리로 갔습니다. 언니는 아버지, 어머니의 묘를 인차 찾아 냈어요. 그 앞에 보자기를 풀어 놓으면서 언니가 나직히 말했어요.

《우리는 원수님한테 두 번이나 갔댔어요… 원수님은 우리를 학원으로 보내 주시겠대요… 영희도 데려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때 영실이가 언니를 쳐다 보며 물었어요.

《언니 누구와 말하니?》

언니는 대답 대신 영실이의 어깨를 그러안으며 멀리 본평양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나는 언니가 원수님의 댁이 있는 쪽을 바라 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월의 봄 아침 해가 언니의 얼굴에 따뜻한 해'살을 담뿍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눈이 부신듯 한 손을 이마에 올리며 계속 원수님 댁 쪽을 바라 보는 것이였어요.

《래일 우린 학원에 가거든! 원수님이 가라구 했거든! 원수님이 가서 공부를 잘 하라구 했거든! 그렇지?! 언니야?!》 영실이가 기쁨이 담긴 동그란 눈으로 언니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언니도 웃으며 영실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리며 《영옥아, 아버지, 어머니가 아신다면 퍽 좋아 하시겠지?!… 얼마나 좋아 하실가!…》 하고는 또 멀리 본평양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허리를 안고 원수님 댁이 있는 쪽을 바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날 조금도 울지 않았어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 우리는 그저 기쁘고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우리는 평양 초등 학원으로 전학하였습니다. 그 날도 원수님이 보내 주신 차를 타고 학원으로 왔어요.

원산에서 영희도 데려 오고요.

나는 사흘 동안 2 년 전에 있은 잊을 수 없는 일을 생각 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쓴 것을 읽어 보니 너무도 적게 썼다고 생각되어요. 마음 속에는 더 크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 쓰지 못했어요.

내가 앞으로 철이 들고 또 어른이 된 후에는 지금 채 모르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글도 더 잘 쓸 수 있겠지요…

나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어요. 우리 4 형제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원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왜 고아겠어요!

그들은 행복을 노래하고 있다

꽃처럼 곱게곱게
불'기둥을 세우며
우등'불이 타 올라요

앞가슴에 펄럭이는
붉은 넥타이
나는요 만지며 생각하지요

저 불'길 앞에서
항일 빨찌산 아저씨들이
새로운 승리를 다짐하였고

그분들 따라 아동단원들이
하늘로 하늘로 불'길을 올리며
두 주먹 굳게굳게 틀어 쥐였으리

아 우등'불 우등'불…

우리들의 마음도 타 올라요
그분들처럼 붉게붉게 타 올라요

황해남도 해주 유자녀 학원 초급반 3 학년

오 석 동

동시

모두모두 똑같은 마음

반 공부 마치고 돌아 온 나는요
괭이 메고 슬쩍 집을 나섰죠
휘영청 달 밝은 이른 봄 밤에
남 몰래 니탄 더미 만들려고요.

이 좋은 봄 밤에 늦게 자면 어때요
풍년 할아버지 모셔 올 생각을 하면
저절로 새 힘이 불끈불끈 솟는걸요
이 힘으로 쿵쿵 니탄 파내죠.

구슬 땀 흘리며 니탄 캐는데
등 뒤에 저벅저벅 발'자국 소리
나는요 깜짝 놀라 돌아 섰더니
우리 반 동무들 괭이 메고 오겠죠

모두모두 내 마음과 똑 같은 마음
500만 톤 내는 일 부지런히 돕재요
서로서로 있는 힘 앞다퉈 내며
니탄 더미 쌓아요, 쌀 더미를 쌓아요

강원도 통천군 송전 중학교 3 학년 김 정남

의학 과학원 동의학 연구소
소장 김 취

박사 김 봉한 선생

조선 인민은 로동당의 찬란한 해'빛 아래 세계 과학 력사에 길이 빛날 또 하나의 위대한 발견으로 하여 기쁨과 자랑에 들끓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세월을 두고 지금껏 생물학 분야에서 해결 못한 문제로 남아 있던 경락의 실태 (본체)가 조선 사람인 박사 김 봉한 선생님을 비롯한 연구 집단의 탁월한 연구에 의하여 발견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는 신경 계통과 혈관 계통 외에 온 몸을 련결하는 다른 계통은 없고 이 두 가지 계통이 사람이나 동물의 몸을 움직이고 무엇을 느끼고 생각까지 하는 것을 조절한다고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박사 김 봉한 선생님은 이 두 가지 계통 외에 다른 경락이라는 계통이 실지 더 있다는 것을 알아 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위대한 발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락이란 어떤 것이며 동의학에서는 경락을 어떻게 생각하여 왔고 병을 고치는 데 어떻게 리용하여 왔을가요?

옛날 사람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눈, 코, 입, 피부, 살, 뼈, 털, 배'속의 내장 등이 서로 련관되여 움직이고 있는데 이처럼 호상 움직이게 련락하는 그런 길을 경락이라고 불러 왔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경락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고 온갖 병을 예방하고 몸의 모든 것을 조절하므로 경락을 모르고서는 아무 병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경락이 이런 모든 작용을 다하기 때문에 경락이 돌아 가는 길을 잘 찾아 침을 놓으면 고치지 못하는 병도 고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동의학에서는 경락을 떼여 놓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경락이 노는 역할은 이렇게 크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의학은 여태까지 경락이라는 것이 있고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말하였으나 경락이 우리 몸에 어떻게 퍼져 있으며 또 그것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엇으로 되여 있는지 그 누구도 알아 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사들이 양의학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쳐 놓고도 그것이 어떤 리유로 고쳐졌다는 것을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 봉한 박사의 위대한 공로로 이 문제가 해결되였던 것입니다.

경락의 실태 발견은 우리 나라에서 유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동의학 발전은 물론이고 현대 생물학과 의학 발전에 헤아릴 수 없는 넓은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오직 박사 김 봉한 선생님을 비롯한 이 연구 집단 선생님들이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를 세우고 선조들의 귀중한 과학 문화 유산을 이어 발전시킬 데 대한 조선 로동당 제 3차 대회의 결정을 훌륭히 실천한 데 있으며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깊은 배려와 고무가 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때문에 이 위대한 발견은 우리 당의 과학 정책의 빛나는 열매로 되며 천리마 시대 조선 인민의 무궁무진한 새 힘의 또 하나의 시위로 되는 것입니다.

경락 실태가 발견되기 전까지 양의학(서양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경락이란 없는 것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지어 냈다는 사람도 있었고 옛날 사람들은 신경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신경의 작용을 경락이라고 잘못 본 것이라고 하여 왔습니다. 이것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경락의 본체가 발견된 오늘에는 우리 선조들이 남겨 준 의학 유산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 가를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김 봉한 선생님이 발견한 경락이 사람들의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어떤 의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의학이 달성한 성과로는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라던가 치료했다 하여도 그 효과가 높지 못한 병도 많은데 경락을 더 연구하여 치료한다면 지금 잘 고치지 못하는 병들인 위'병,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귀머거리, 벙어리, 앉은뱅이 등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는 법을 찾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병이 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위대한 발견을 앞에 놓고 전 세계 선량한 인민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을 때 남반부의 인간 백정 박 정희 도당들은 인민들을 치료해 주기는 고사하고 《동의학은 보건 사업에 해로운 것 뿐이지 유리한 것은 없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동의학을 없애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조선에서는 수 많은 인민들과 어린이들이 병이 나도 약 한 첩 못 쓰고 억울하게 죽어 가고 있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모두가 무료로 공부하고 무료로 병 치료를 받으며 누구나가 원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회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은 위대한 과학적 발명이나 발견이 거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경락 실태를 발견한 박사 김 봉한 선생님을 비롯한 경락 연구 집단 선생님들은 경락 실태를 발견하기 위한 실험에서 1,000여 번의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조금도 락망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사업이 곤난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읽고 거기서 새 힘을 얻군 하였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간 실험에 사용한 토끼만 하여도 실로 1,000 마리가 넘습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우리 조국 앞날을 걸머지고 나아갈 일'군들입니다. 동무들에게는 무한한 앞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조국의 앞날은 동무들이 어떻게 배우며 준비하는 가에 달려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 이것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무들은 학습과 소년단 사업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 꾸준하고 인내성 있게 배우며 준비하여 조국 앞날의 과학자 발명가가 되여 주기를 바랍니다.

경락 실험실에서의 김 봉한 교수

폭풍과 싸운 소년단원

—황해남도 장연군 청계 중학교 단 제 7 분단 (인민반 4 학년)
로 명순 동무에 대한 이야기—

최 죽 산

그림 류 현 숙

지난 해 봄 이곳 학교 제 7 분단 동무들은 100만 톤의 알곡을 증산할 데 대한 당의 부름과 정평군에서 하신 김 일성 원수님의 말씀을 받들고 농사'일을 그 전보다 더 힘써 도울 것을 분단 모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 분단 동무들은 랭상 모판 종이를 모으는 한편 퇴비 내기, 소년 선전 예술대 활동 등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의 알곡 100만 톤 증산을 위한 로력 투쟁을 도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합의 랭상 모판 옆을 지나다니는 명순이는 파릇파릇 자라나는 랭상모를 볼 때마다 흐뭇한 마음으로 풍년질 가을을 생각해 보군 하였습니다.

그러던 지난 해 4월 4일이였습니다. 따뜻하던 봄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지더니 아침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후에 접어 들면서 바람은 더욱 세차게 불었으며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돌아 오던 명순이는 랭상모가 걱정되여 모판으로 갔습니다. 가 보니 태풍이 불어 올 것이라는 일기 예보를 듣고 아침에 조합원 아저씨들이 그렇게도 튼튼히 꾸려 놓은 방풍장 말뚝 하나가 바람에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명순이는 모판 관리원 아저씨와 함께 청계천에 가서 큰 돌을 주어다가 말뚝에 괴여 놓고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비'바람은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동리 어른들은 이웃 마을인 5 작업반의 랭상 모판이 위험하다는 급한 소식을 받고 모두들 그리로 밀려 갔습니다.

숙제를 마치고 동생들과 함께 자리에 누운 명순의 머리 속에는 오늘 학교에서 돌아 오던 길에 있은 일이 자꾸 떠 올랐습니다. (그 말뚝이 일 없을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명순이는 자리를 차고 일어 났습니다. 명순이가 문을 열자 숨이 막힐듯한 세찬 비'바람이 온 몸에 안기며 그의 손에서 문'고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후닥닥 놀란 명순이는 왈칵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누웠습니다. 가슴은 방망이질하듯 두근거렸습니다.

밖에서는 왱가당 뎅가당하며 뜰 안의 물건들이 날려 가는 소리가 나더니 우지직하고 뒤'울안에 있는 느티나무 가지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어떻게 할가? 가 볼가 그만 둘가?)

이렇게 주저하는 순간 《소년단원들은 로동을 즐기고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껏 도우며 국가와 인민의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하여야 한다.》는 소년단원의 의무 조항이 머리에 떠 올랐습니다. 명순이는 다시 일어 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새끼 뭉치 하나를 안고 문을 나섰습니다.

처음 가는 길은 아니였지만 먹물을 뿌린듯한 캄캄한 밤에 태풍까지 불어대서 발'걸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뛰다가는 넘어 지군 하였으나 더 용기를 내여 랭상 모판을 향해 뛰였습니다.

그가 숨이 하늘에 닿아 랭상 모판에 다다르니 모판 관리원 아저씨는 어디로 가셨는지 안 계셨습니다. (어데 가셨을가? 모판이 위험하다고 조합에 알리려 가셨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잠시 숨을 돌리고 섰는데 휙하고 세찬 바람이 불어 오더니 모판 나래들을 말아 가지고 날아 났습니다.

《어마나 이걸 어쩐담.》

명순이는 관리 위원회 쪽을 향해

《나래가 날아나요!》 하고 소리치며 몇 발'자국 뛰다가 그만 우뚝 서 버렸습니다. (알리러 갈 사이면 나래가 다 날아갈 것이 아닌가.) 명순이는 두 손을 모아 입에다 대고 힘을 다하여 소리쳤습니다.

《랭상 모판 나래가 날아나요!》

그러나 세찬 비'바람 소리는 그의 웨침 소리를 삼켜 버리군 하였습니다.

(이제 조합 아저씨들이 오시겠지. 그동안 내 혼자 힘으로라도 모판을 지켜야 해)

이렇게 결심한 명순이는 날아난 나래를 손더듬으로 하나 둘씩 끌어다가 말뚝에 동여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비'바람이 어찌나 몰아 치는지 하나를 매 놓으면 또 다른 나래가 날아나군 했습니다. 미처 손쓸 사이 없이 날아났습니다. 그런 데다 뿌리는 비'물 때문에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비'물을 쥐여 뿌리며 날아나는 나래를 따라 가 잡아다가는 말뚝에 매군 했습니다. 발 밑은 진흙 바탕이여서 걸핏하면 엉덩 방아를 찧으며 넘어지군 했습니다. 그가 일어나면 휙하고 바람은 그를 다시 뒹굴려 놓았습니다. 이렇게 몇 번 구을고 나면 어디가 어딘지 상방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가지고 온 새끼도 다 썼습니다. (어떻게 할가 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한 명순이는 청계천을 향

해 허둥지둥 뛰였습니다. 그는 청계천에 나가 호박만큼씩이나 되는 큰 돌을 치마 폭에 담아다가는 나래 우에 짓눌러 놓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만에 그는 그만 바람에 밀리우면서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치마 폭에 쌌던 돌들이 떨어지며 발'등과 오른 엄지발'가락을 짓쪼았습니다. 숨이 넘어 가는듯한 아픔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찔끔 떨어 졌습니다. 이그러진 발톱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명순이는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 가며 겨우 나래 있는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러나 더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돌마저 날라 올 수 없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량 손을 벌리고 나래 우에 엎디였습니다.

명순이는 획획하고 비'바람이 세게 불때마다 나래 우에 몸을 더욱 바싹 붙이며 량 손으로 말뚝을 꽉 끌어 잡았습니다. 그가 엎드린 곳의 나래는 날아나지 않았으나 바람이 불 때마다 다른 나래들은 자꾸 펄럭이며 방금 날아날듯 했습니다. 안타까운 명순이는 《나래가 날아나요》 하고 또 다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나 비'바람은 역시 그의 웨침 소리를 삼켜 버리군 하였습니다.

(나래를 동여 맬만한 끈이 없을가?) 이런 생각을 한 명순이는 자기 몸을 어루만지다가 비에 젖어 몸에 붙은 치마에 손이 갔습니다. 그러자 그는 치마 폭을 찢어서 나래들을 비끄러 매기 시작하였습니다.

방금 날아날듯한 나래를 거의 다 비끄러 맸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방풍장 말뚝이 《뿌두둑》 소리를 내며 넘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이 말뚝마저 넘어진다면 랭상 모판 문짝은 순식간에 하늘로 날아 오르고 말 것입니다. 명순이는 급히 말뚝 밑으로 뛰여 들며 등을 들여 댔습니다. 명순이는 바람을 안고 넘어지는 방풍울타리를 등에 지고 있는 힘을 다하여 버티였습니다.

그러자 명순의 눈 앞에는 비'바람이 아니라 푸르디 푸른 랭상모를 내는 조합원들의 모습과 풍년 든 조합 벌판이 안겨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100만 톤 알곡 증산에 떨쳐 나선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손을 도와 퇴비도 나르고 종이도 모으고 송탄유를 얻기 위해 산에 가서 솔 등걸을 캐 오던 일이 선히 떠 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여 내야 한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과 비'물이 한데 섞여 쉴새 없이 눈과 입으로 흘러 들었습니

동 요

새 봄이 왔어요

500만 톤 풍년들
새 봄이 왔어요.
들에 산에
파릇파릇 새 움이 터요.

가지각색 고운 꽃씨
나는요 뿌리는데
저 멀리 조합'벌엔
노래'소리 흥겨워요

퉁퉁퉁 뜨락또르
운전수 아저씨
500만 톤 문제 없다 손짓하면서
비료'더미 헤치며 조합'벌을 갈아요

500만 톤 풍년 물'결
넘실넘실 춤출 때엔
풍악 소리 울리면서
우리도 추수 탈곡 도와 나설 테야요

황해남도 해주시 수양 중학교
인민반 4 학년 2반
최 영 희

다. 순간 그의 귀에는 비'바람 소리에 섞이여 멀리 관리 위원회 마당에서 울려 오는 스피카의 노래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 왔습니다.

명순이는 들려 오는 스피카 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용진용진 나가세 용감스럽게
억천 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

노래를 부르는 명순이는 저도 모르게 새 힘이 솟아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칠 대로 지친 어린 명순이는 무거운 힘으로 짓누르는 말뚝을 오래 버티여 낼 수가 없었습니다.

말뚝은 우지직 하고 소리를 내며 명순이를 깔고 넘어졌습니다. 명순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다시 말뚝을 버티며 일어 났으나 이젠 온 몸이 나른해지며 막 꺼꾸러 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랭상 모판을 지켜 폭풍과 싸우고 있을 때 멀리에서 조합원들이 뛰여 오는 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아저씨 나래가 날아나요.》

명순이는 있는 힘을 다하여 소리쳤습니다. 폭풍에 뒤섞여 들려 오는 소녀의 웨침 소리를 들은 조합원들은 더욱 힘을 내여 뛰여 왔습니다.

《아니! 네가 명순이 아니냐?!》

조합원들은 모두가 깜짝 놀라며 목 메여 더는 말을 못하였습니다.

《아니 언젠가 장판지를 가져 다 찢어진 모판 문을 바르던 애가 아니냐?》

명순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판 관리원 아저씨의 량 볼에는 비'방울인지 감격의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굴러 떨어졌습니다.

모판 관리원 아저씨는 폭풍이 세게 몰아치자 조합원들을 데리러 갔다가 그 때에야 오는 길이였습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바람도 새벽녘부터 자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살을 받은 랭상모는 아무일 없었던 듯이 푸르싱싱했습니다.

명순이가 구원한 랭상모는 19 정보의 논에서 무럭무럭 자라서 지난 가을에 이 마을에도 풍년을 가져 왔습니다.

지금 이곳 조합원들은 모두 명순이를 《조합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기어이 이 원쑤 갚으리라!

손 병 도　　　　그림 채 용 찬

오 세 환

편집부는 많은 독자들로부터 조국 해방 전쟁의 일시적 후퇴 시기 공화국 북반부에 기여 든 미제 원쑤놈들의 만행을 겪은 소년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여기에 원쑤놈들의 학살 만행으로부터 구사 일생으로 살아나 지금 해주 유자녀 학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고 있는 오 세환, 정 재혁, 주 상원 동무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황해남도 신천군 애무산에서 있은 미제 원쑤놈들의 대중 학살 만행 속에서 살아 나온 오 세환 동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 봅시다.

죽음의 구뎅이를 헤치고

지금으로부터 10 여 년 전 일이지만 나는 잠시도 그 때 겪은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50년 10월 미국 양키 놈들이 나의 고향 신천에도 기여 들었습니다.

그 때 우리 집 식구는 일곱명이였고 나는 열 두살 나는 소년단원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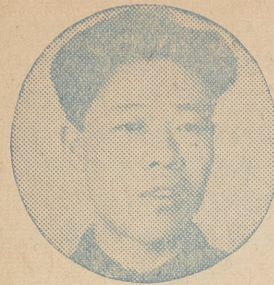
놈들은 로동당원인 나의 아버지를 끌어다 학살했습니다. 그리고도 시원치 않아 놈들은 우리 집 식구를 몽땅 신천 온천 창고에 끌어다 가두었습니다.

창고는 벌써 수 많은 어머니들과 어린이들로 발을 옮겨 놓을 수 없이 빼곡히 차 있었습니다.

놈들은 벌써 며칠째 물 한 목음 주지 않고 가두어 두고는 닥치는 대로 끌어 내다 학살하군 했습니다.

말라 붙은 어머니의 젖 가슴을 쥐여 뜯으며 아우성치던 어린이들도 이제는 목이 마르고 배고파 더는 어머니를 부를 힘조차 없어져 죽은듯이 너부러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미제 승냥이놈들이 창고 문을 열고 달려 들더니 껄껄 웃어대며 우리를 애무산으로 끌고 올라 갔습니다. 끌리워 가든 어머니가 등에 업은 나의 동생 세신이를 다시 업으려고 섰는데 밉살스러운 승냥이 놈들은《죽으려 가면서 아이나 다시 업어서 뭘 해, 빨리 가!》하면서 발'길로 힘껏 차 밀었습니다. 며칠째 굶은 어머니는 그만 그 자리에 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때 나의 가슴은 막 터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나에게 총이 없는 것이 한스러웠습니다.

정 재혁

애무산까지 끌고 간 놈들은 어머니들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아우성치는 어린이들을 창으로 막 찔러 죽였습니다.

나도 놈들의 총에 맞아 정신을 잃고 쓸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시체들이 나의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체들을 가까스로 헤치고 나왔을 때 동생 세국이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여 눈을 껌뻑거리며 일어날 줄을 모르고 누운 채 있었습니다. 어머니등에 업힌 막내 동생 세신이는 벌써 죽고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되여 아직숨'결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어머니! 어머니!》하고 몇 번이고 안타깝게 불렀습니다. 겨우 눈을 뜨시고 나를 바라보든 어머니는《얘야 넌 살아서 이 원쑤를 꼭갚아야 한다.》고 가느다란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희미한 달밤 무서움도 추위도 잊고 나는 돌아 가신 어머니를 껴 안고 날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순간 나에게는 빨찌산의 딸 정 만금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나도 그처럼 싸워야 한다》.

어머님이 남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나는 세국이와 함께 마을로 내려 왔습니다. 그때야 나는 목에서 피가 흘러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걸 알았습니다.

마을은 전에 없이 고요하고 개싸다니듯 하던 원쑤 놈들도 간데 온데 없었습니다.

이날 마침 우리의 인민 군대가 원쑤들을 쳐부시고 마을로 들어 온 것이였습니다. 설음에 북받친 나는 인민 군대 아저씨들을 붙안고 막 울었습니다.

아저씨들은 나와 세국이를 자기 친동생처럼 사랑하며 치료 해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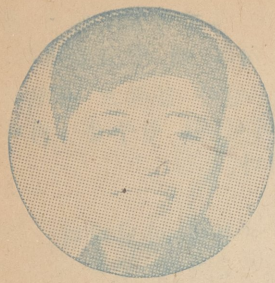
나는 미국놈들을 갈아 없애도 씨원치 않습니다. 나는 기어이 이 원쑤를 백배 천배로 갚을 것입니다.

놈들의 만행은 이뿐이 아닙니다. 두번씩이나 놈들에게 붙들리여 죽을 고비에서 살아 나온 정 재혁 동무의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살아서 원쑤를 갚아야 한다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여덟 식구가 살았습니다.

내가 열 한살 때 은률군에 기여 든 미제 승냥이놈들은 발'길을 들여 놓기가 바쁘게 애국자들을 잡아다 학살하기에 미쳐 날뛰였습니다.

어느 날 밤 7명의 미군놈과 그 앞잡이

주 상원

치안대놈들이 우리 집에 달려 들어 다짜고짜로 우리 집 식구들을 뒤짐 지우고 은률 광산 굴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50 메터나 되는 수직갱이 있였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모조리 이리로 끌고 와서 가마니를 뒤집어 씌우고 굴 속으로 차 던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굴 안은 시체'더미였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서 인기척이 나서 깜짝 놀라 돌아다 보니 누이 동생 재현(7세.)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질 않겠습니까?

《재현아!》하고 나는 힘껏 웨쳤습니다. 그때야 정신이 들었는지 재현이는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도 붙안고 울었습니다. 우를 쳐다 보니 까마득하게 훤한 구멍이 보일 뿐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한다.》고 생각하니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속을 빠져 나올 일이 막연했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재현이까지 데리고 나갈 생각을 하니 더욱 아득했습니다.

나는 어린애들을 업은채 죽은 어머니들의 시체를 헤치며 띠를 풀어 모았습니다. 이리하여 열 다섯 개의 띠를 무어 한 끝은 재현이의 허리에 매고 한 끝은 나의 허리에 맨 다음 바위 뿌리를 잡고 발 딛음을 해가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습기가 찬 바위는 미끄러워 결핏하면 미끄러져 떨어지군 했습니다. 몇 번씩이나 오르다 굴러 떨어져 온 몸은 찌끼고 손'가락 끝은 달아져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이 광경을 본 동생은 울먹거리며 《오빠 혼자 나가.》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동생을 껴 안고 막 울였습니다. 《기어이 살아 나가서 이 원쑤를 갚아야 한다.》 나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죽엄의 구뎅이를 벗어 난 나는 줄을 잡아 당겨 누이 동생 재현이도 끌어 올렸습니다. 그 때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지금 생각하면 꿈 같기만 합니다.

놈들의 눈을 피해가며 십리 가량 떨어진 마을까지 갔을 때 우리는 그만 또다시 놈들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습니다.

놈들은 우리를 장작개비로 후려 갈기는 것이였습니다.

구사 일생으로 살아 나온 누이 동생은 그 자리에서 단번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내 앞에 다가선 원쑤 놈들은 나에게 《그 안에 또 누가 살아 있는가?》《넌 어더로 나왔는가? 바로 대면 살려 준다.》 시뻘건 눈알을 부라리며 달려 들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떼지 않으니까 놈들은 다시 나를 그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놈 네 집으로 다시 들어가 봐라!》 하고 발'길로 차 넣는 것이였습니다. 나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또 그 무시무시 한 광산 수직갱 안이였습니다. 그런데 갑짜기 어디선가 인기척이 났습니다. 죽은척하고 가만히 정신을 차려 살펴 보니 치안대놈 셋이 들어 와 죽은 시체를 창으로 막 찌르고 있였습니다. 나도 놈들의 창에 찔리웠지만 이'발을 악물고 참으면서 죽은척 했습니다. 놈들은 《이제야 다 죽였겠지.》 하며 나가 버렸습니다. 나는 놈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놈들이 아무리 죽이려 해도 나는 죽지 않았다. 살아서 반드시 네놈들에게 복쑤의 죽엄을 주고야 말리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 놈들이 나가던 굴로 살금 살금 따라 나갔습니다. 그러나 벌써 놈들은 쇠를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나는 이를 악 물고 높은 수직갱을 또다시 바라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밤을 리용하여 구월산으로 찾아 올라 갔습니다. 마침 도중에서 빨찌산 아저씨를 만나 나는 구원되였습니다.

나는 지금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며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나의 가슴은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생각과 미제 원쑤들에 대한 증오로 불탑니다.

나는 이 원쑤를 갚기 위하여 크거들랑 꼭 인민 군대가 되여 미제 원쑤놈들의 가슴팍에 복쑤의 총창을 꽂고야 말겠습니다.

두발 가진 승냥이들은 악랄한 만행을 감행하였습니다. 미제 원쑤놈들이 얼마나 악랄한 승냥이놈들인 가를 신천 대중 학살 만행 때 화약 창고에서 살아 나온 주 상원 동무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 봅시다.

화약 창고에서 벗어나

미제 양키 놈들은 나의 아버지가 모범 로동자라하여 두개의 달구지에 매여 사지를 찢어 죽였습니다.

나와 어머니는 밤나무'골에 있는 두 개의 화약 창고에 따로 갇치웠습니다.

한 주일 동안이나 놈들은 밥 한 술 물 한 목음 주지 않았습니다. 목이 타고 배 고픈 나는 고무신에 오줌을 받아 마시였습니다.

구석 구석에서는 벽을 긁고 후비다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매일 늘어 갔습니다. 살아 있는 아이들도 《물! 물!》 하고 물을 찾다 쓸어지군 했습니다.

그럴 때 미제 승냥이놈들은 《요 빨갱이 종자들아 예따 실컷 먹어라!》 하며 휘발유를 가져다 뿌렸습니다. 목 마른 아이들은 그것이 물인줄 알고 고무신으로 받아 꿀꺽꿀꺽 마시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른 놈이 들어 와서 우리의 머리 우에 성냥을 그어 댔습니다. 삽시간에 삼'단 같은 불'길이 어린이들을 삼키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다 놈들은 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나는 창고 한편 구석에 박힌채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아이들은 거이다 죽고 아직도 어떤 아이들의 몸에선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정신 없이 연기 속을 뚫고 훤하게 열려진 문 앞까지 벌렁 벌렁 기여 나가 손에 지피는 대로 눈을 움켜 먹다가 그만 그자리에 다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어떤 할머니의 집이였습니다. (김 심금 할머니다. 지금 62세이고 오늘도 신천군에 계신다.) 할머니는 나를 친 손자 처럼 간호해 주었답니다.

원쑤 미제놈들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고 나까지 그처럼 악착스럽게 죽이려 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오늘 이처럼 살아서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품 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반부에서는 미제 원쑤들이 우리 고향에 들어 와서 한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메여 올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속히 미제 원쑤놈들과 그의 앞잡이 박 정희 살인 강도 놈들을 때려 부시고 남조선 형제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힘껏 투쟁하겠습니다. 나는 크면 반드시 인민 군대에 나가 이 원쑤를 갚고야 말 것입니다.

이것이 당과 김 일성 원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며, 원한 품고 돌아 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잇는 길이며 원쑤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 환상 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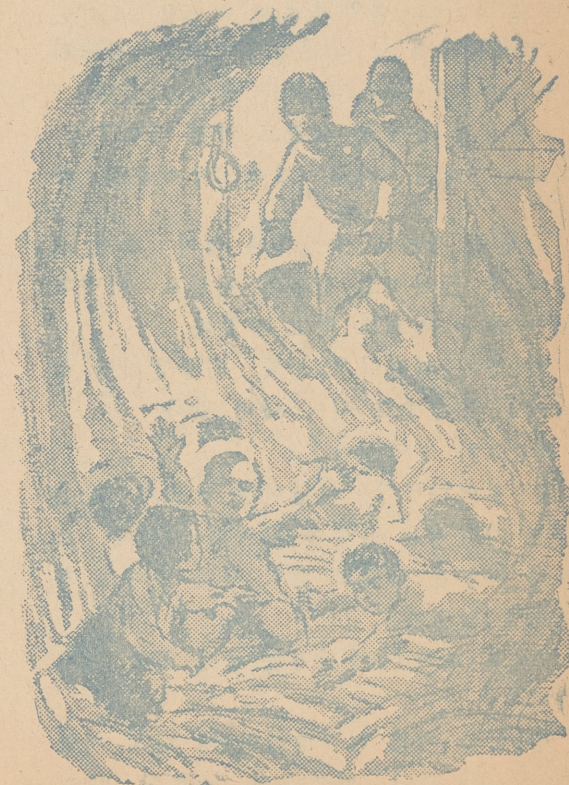
보물의 세계를 찾아서

김 동 섭

그림 양 재 혁

(전호의 계속)

1,800 메터, 1,700 메터…

지상이 점점 가까와 온다. 수레가 올라 가는 쪽쪽 거세찬 석유의 흐름이 솟구쳐 올라 오는 것이였다.

수신기에선 땅 우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웅성거림 소리가 계속 울려 나왔다.

(석유의 분수를 선물로 가져 간다!)

그들은 신이 나서 계속 어깨춤을 추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신기에 들려 오던 소리가 뚝 끊어지고 발동이 저절로 꺼지더니 수레는 스르르 멎고 말았다.

《어떻게 되였어?》눈이 휘둥굴해진 정남이는 운전실로 뛰여 내려 갔다.

《연료가 떨어졌어!》

《무엇이라구?》 정남이는 연료가 남은 량을 가리키는 바늘을 바라다 보았다. 그러나 바늘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가리키고 있었다.

《저걸 보지!》정남이는 눈을 들어 가리켰다.

《아니야 저건 거짓말쟁이야, 나도 저놈한테 속아 왔어, 아까부터 바늘이 내려가지 않길래 이상하다구 생각했어.》 종철이도 답답하다는 듯이 대답하였다.

하긴 연료가 떨어질 때도 되였었다. 수레에 쓰는 연료는 특수한 화학 연료였고 잘 불타게 하기 위해서 과산화 수소도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것들이 모두다 떨어져 버린 것이였다.

《어째서 무전까지…》혜선이는 맹꽁이처럼 맹—맹 코멘 소리만을 내는 무전기를 어이가 없어 보고만 있었다.

다음 순간에 조종'대 앞에 달려 있던 수많은 바늘들이 하느적거리기 시작하더니 모두다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지남침도 두 바퀴나 어슬렁 어슬렁 돌다가 엉뚱한 곳에서 멎어 버렸다.

《에그머니나 이게 웬 일일가 우리가 요지경 속으로 들어 왔나?》연희가 놀라서 소리쳤다. 영사막에는 자그마한 불꽃이 뚝뚝 날아 들어 와서는 반짝 사라지군 하였다.

종철이는 계속 발판을 누르고 조종간을 잡아 당겨 보았지만 수레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으흠》정남이도 머리를 감싸 쥐였다. 그들은 제 마음을 조금도 몰라 주는 기계가 야속하기 짝이 없었다.

《여기까지 아저씨들이 구원하러 내려 오려면 스무 시간은 걸릴거야.》 어쩐지 몸이 퍽 무거워진 것을 느끼면서 정남이가 말하였다.

《그때까지 우리가 견디여 낼 수 있을가?》 온 몸의 맥이 탁 풀려 의자에 몸을 눕히면서 연희가 말하였다.

《우리는 끝끼지 이 분수를 파 올려야 해!》 종철이는 기운을 내려고 주먹을 불끈 쥐며 웨쳤으나 몸이 잘 말을 듣지 않았다.

알지 못할 힘이 그들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는 것이였다.

《아유 골치 아파!》혜선이가 단발 머리를 움켜 쥐며 말하였다.

《동무들! 우리는 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 놓아야 되겠어, 탐사 수첩들과 모든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갖추어 놓아야 하겠어 그래야 우리가…》 정남이는 침착하게 말하려고 하였으나 차마 말끝을 맺지 못하였다.

《한가지 더 쓸 게 있어요, 100년 후에 석탄과 석유를 다 때고 나서는 무엇을 써야 될런지 적어 줘요.》혜선이가 몇 번이나 다짐하는 것이였다.

《좋아 혜선이, 우리는 언제나 래일을 위해…》 정남이가 씨원하게 웃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제가끔 맡은 일을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정남이는 탐사 일기를 정리했고 연희는 사진과 표본들에 설명을 적어 넣었다. 종철이는 지형의 특징과 수레의 운전 경험을 자세히 적었다.

혜선이는 계속 무전을 치고 있었다.

《선생님! 아저씨들! 우리는 알지 못할 원인으로…》

그들은 더욱 몸이 무거워진 것을 느꼈다. 그러나 모두가 기쁨에 찬 얼굴로 웃고 있었다. 그 누구도 지금까지 해 내지 못한 대담한 땅 속 려행을 처음으로 해 내였고 귀중한 보배와 석유들을 발견한 커다란 자랑으로 가슴은 끓고 있었다.

그들은 노래를 힘차게 부르기 시작하였다.

돌 아 왔 다

그들이 문득 잠에서 깨여 난듯이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어떻게 된 셈인지 땅 우에 올라 와 있었다.

그들이 눈을 뜨자 야! 하는 기쁨에 찬 웨침 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아마도 수백 명은 실히 될듯하였다.

정남이는 몸을 벌떡 일으켰다. 해'빛이 눈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저편에서 폭포처럼 소리를 내면서 솟아 오르는 석유의 분수를 발견하자 금시에 새 힘이 솟아 올랐다.

《저걸 봐!》정남이의 웨침 소리를 듣고 종철이도 연희도 벌떡 일어 났다. 안개를 피우며 무지개를 영롱하게 그리며 솟구쳐 오르는 석유의 분수는 보기에도 가슴이 흐뭇하였다.

탐사대 아저씨들, 과학 부문 일'군들, 선생님들, 학교 동무들, 마중 나온 사람들 속에서는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그칠 줄을 몰랐다. 휘날리는 소년단 기'발과 오색 꽃보라 틈 사이로《용감한 지하 려행자들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구호가 큼직하게 씌여 있는 구호판들이 보였다.

《참 장하다 장해!》 선생님과 부모님들이 아직도 벙벙해 앉아 있는 그들을 번갈아 안아 주면서 말하였다.

아직도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던 그들은 아저씨들이 수천길 땅 속

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던 이야기를 들은 후에야 영문을 알게 되였다.

《정말 위험한 려행이였소. 동무들을 가스화 탄광 속에서 발견했을 때 우린 얼마나 가슴이 서늘했는지 모르오. 그뿐인가 아까 방사선 구역에 빠졌을 때는 어떻고.》 탐사대장 아저씨는 땅 우에서 오히려 더 혼이 났다고 자세히 이야기 해 주었다.

혜선이의 무전을 받고 수레가 방사선 구역에 빠진 것을 알게 된 탐사대 아저씨들은 마침 그곳이 우라늄 광산의 갱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였기 때문에 온갖 힘을 다 기우려서 제 시간만에 그들이 있는 곳까지 구원하려 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정말 다행이였어요.》 선생님은 기쁨의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동무들은 아주 큰 일을 하였소. 우리도 벌써 그런 생각을 품고 여러번 이 지역을 탐사했지만 그 우에 있던 방사선 물질이 방해를 놀아서 물리 탐광도 항공 탐광도 모두 실패하고 그 밑에 있는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동무들이 그 속에 들어가서 찾아 내고야 말았소.》 대장 아저씨는 해빛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석유의 분수를 대견하게 바라 보며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였다.

《선생님, 그렇지만 100년 후에 저 석유도 다 써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혜선이는 그래도 안 잊었다는듯이 묻는 것이였다.

선생님은 말 없이 빙그레 웃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기사 아저씨 한분이 웃으면서

《그건 걱정할 게 없다. 이제 방금 너희들이 혼 났던 그 곳엔 원자 연료들이 아주 많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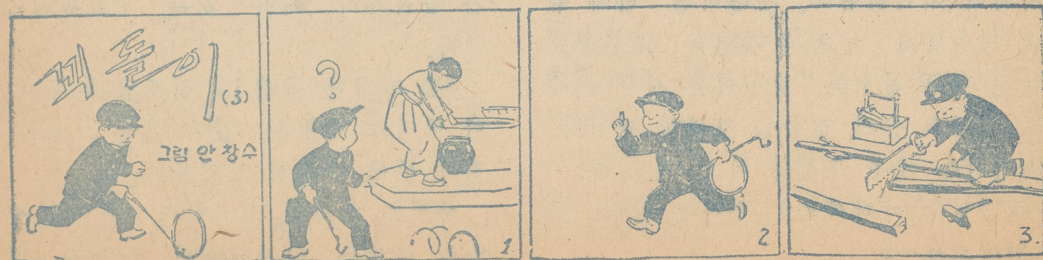
그것들은 주먹만한 덩어리만 가지고 석탄 수 백차나 석유 수 천 톤과 같은 열과 전기를 얻을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 천년이 지나도 우리 나라는 연료 때문에 걱정하지는 않는다.》하고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었다.

《알았어요!》 혜선이도 이제는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다.

그들은 가슴이 벅차고 눈'시울이 뜨거울 뿐이였다.

우렁찬 환호 속에 꽃보라와 오색 테푸에 싸인 자동차는 그들을 태우고 떠났다.

10년 후에

여기는 광산, 하지만 이제는 굴이 없다. 감탕물처럼 녹아 내린 광석 용액을 퍼 올리는 큼직한 펌프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땅 속에 내려 가서 파는 것은 구경 조차 할 수 없다. 굳은 광물들은 땅 우에서 퍼 넣은 산이나 알카리에 모두 슬슬 녹아 버린다.

광산 기사 정남이는 오늘도 땅 속 지도를 펼쳐 놓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물로 가득 찬 땅 속은 한 치가 새롭고 귀중하다.

오늘은 여기, 래일은 저기, 정남이의 붉은 연필 끝이 가 닿는 곳 마다에서 보배는 땅 우에로 샘 솟듯 솟구쳐 오른다.

광석은 옆에 있는 금속 공장으로 간다.

금속 기사가 된 종철이는 혼자서 그 커다란 용광로를 운전하고 있다. 광석을 퍼 담는 것도, 석탄 가스로 그것을 녹이는 것도 모두가 혼자서 할 수 있게 되여 있다. 한 아름이나 되는 강철 기둥이며 가느다란 철선이며 할것 없이 숫한 무쇠가 국수처럼 쭉쭉 뽑혀 나온다.

기계 기사가 된 연희는 기계들을 조종하여 그것들을 가공하고 있다.

뜻대로, 명령서대로 물이 흐르듯이 새 기계가 펑펑 쏟아져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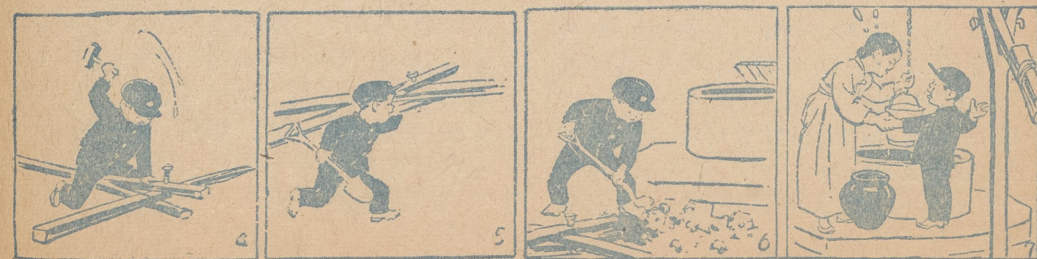
혜선이는 소원 대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한다. 하루에 성냥갑 만한 원자 연료를 태워서 온 도시를 밝힌다.

어느 봄날, 네 청년들은 모란봉 앞 언덕에 높이 솟은 인민 대회장에서 만났다.

방금 푸른 하늘에라도 날아 오를 듯이 날씬한 날개식 지붕은 해빛에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네 청년의 가슴에선 훈장들이 번쩍이고 있었다.

온 누리가 휘황하게 빛나고 있었다.

(끝)

행복할수록 부모들의 과거를 잊지 말라

조선 속담에 《부자가 하나면 세 동네가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주나 자본가놈들이 얼마나 악독한 놈인 가를 말해 주는 속담입니다.

지난 날 나는 그런 악독한 지주 놈 밑에서 아홉 살 때부터 18 년이란 긴 세월을 두고 머슴살이를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몹쓸 전염병으로 앓아 눕게 되자 지주 신 현칠이란 놈은 우리 집에 소작으로 주었던 땅(3,000 평)마저 떼였습니다. 그 때 소작인들에게서 땅을 빼앗는다는 것은 산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과 같은 것이였습니다.

약 한 첩 쓰지 못한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나는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였습니다.

세상은 넓으나 갈 곳이 없는 나는 그때부터 지주 집 머슴으로 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네 놈이 20 년은 일해야 아버지의 빚이나 겨우 갚는 줄 아라.》

지주 놈은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며 마른 일, 궂은 일 할 것 없이 다닥는대로 일을 시키였습니다.

지주 놈의 집에는 머슴이 네 명이 있었는데 저마다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나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소여물을 끓이고 둘째 첩의 딸애를 학교까지 업어다 주는 일과 낮이면 지주 놈의 술 심부름을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도 쩍하면 매를 얻어 맞기가 일수였습니다.

지주 놈은 1 년 내내 손톱 끝 하 번 까딱하지 않고 술에, 고기에, 기생 놀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궂은 비 나리는 날이였습니다. 지주 놈은 소 뜯기러 가지 않았다고 돼지 멱 따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 마리나 되는 소를 끌고 산에 간 나는 옷이 젖어 들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비를 좀 그으려고 소는 바'줄을 사려 등에 얹어 놔 주고 큰 나무 아래에 풀막을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풀막을 다 치고 났을 때였습니다. 한 마리의 소가 간데 온데 없어졌습니다. 온 산 속을 찾아 헤매였으나 헛 일이였습니다.

《혹시 이놈의 소가 제절로 돌아 가지나 않았을가?》 하고 집에 돌아 와 보니 소는 고삐를 끊고 집에 와 있었습니다.

이 날도 지주 놈은 기생들을 데리고 개성에서 나온 순사 놈과 술놀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소는 보지 않고 어디 가 잠자다 왔어 엉!》

술에 얼근히 취한 지주 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 안에서 뛰여 나오더니 나의 뺨을 냅다 때리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벗기고 기둥에 비끄려 매놓고 몽둥이로 사정 없이 때리는 것이였습니다. 일본 순사 놈은 내가 운다고 허리에 찼던 칼을 툭툭치며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네놈이 열이래도 그 소 한 짝 값 못당해, 이놈 어디 벌을 받아 봐라 삼시 밥을 배 불리 먹이니 잠만 자?》 그 잘난 피밥 세 끼씩 주던 것도 그 날부터는 두 끼씩 밖에는 주질 않았습니다.

어느 해 지주 놈의 생일 때입니다. 나는 그놈의 생일 날을 앞둔 며칠 전부터 생일 잔치'감으로 소작인들에게서 강제로 받아 들이는 떡과 술 그리고 닭 등을 받아서 창고에 넣는 일을 하게 되였습니다.

500 석이나 들어 간다는 지주놈의 창고 안에는 3 년 묵은 쌀이 그득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지주놈은 끼니를 굶는 소작인들에게서 이렇게 자기 생일 잔치'감까지 빼앗아 들였습니다.

소작인들은 땅을 떼우지 않으려고 자기들은 배를 졸라 매면서도 하는 수 없이 떡이며 술이며 닭을 미리부터 가져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제일 곤난하던 김 허근이라는 소작인은 지주 놈의 생일 날 아침에야 비지 땀을 흘리며 무엇인가 한짐 꾜박 등에 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등에 졌던 짐을 풀며

《이거 뭐 변변치 못한겁니다.》

하면서 닭 한 마리와 술 한 병 그리고 떡합지를 내놓는 것이였습니다.

그것이 너무 작아서 못 마땅하다는 듯 한번 힐끔 돌아 보고는 지주놈은 돼지 멱 따는 소리로 나를 부르는 것이였습니다.

《이 닭은 〈마루〉나 줘!》 (〈마루〉란 지주네 집 개의 이름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뜻 밖의 일이여서 미처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 머뭇거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식이 입이 얼어 붙었나 왜 대답이 없어.》

왕방울 같은 눈알을 부라리며 지주 놈은 또 다시 앙칼진 소리를 지르는 것이였습니다.

뱃이 불끈 치밀어 올랐지만 그 놈의 말을 듣지 않는 날엔 어떤 일이 돌아 올지 몰라 나는 할 수 없이 소작인이 가지고 온 닭을 개에게 주었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놈… 누구 덕에 네집 일곱 생명이 살아 가느냐!》 이렇게 쏘아 붙치고 난 지주 놈은 떡 함지에 침을 탁 뱉고 나가 버리는 것이였습니다.

다음 해 봄에 지주놈은 허근 아저씨에게 소작 주었던 땅을 떼고야 말았습니다.

오월 단오'날이 가까와 왔습니다. 나는 단오'날엔 헌 옷이나마 깨끗이 빨아 입으려고 며칠 전부터 산에 가서 미리 미리 나무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단오 전 날엔 노닥노닥 해진 토스레 옷이나마 빨아서 밤 늦도록 깁고 있었습니다.

밤이 퍼그나 깊었을 때였습니다. 퇴마루 구루는 소리가 나더니 문이 벌컥 열리였습니다.

《이자식 기름이 닳는데 깊은 밤에 뭘하느냐?》

살기 떤 지주 놈이 소리쳤습니다.

《단오'날이 돼서 궤진 옷이라도 기워 입으려고…》

두 눈을 판 소년

승냥이의 굴—미국 수도 워싱톤에 어둠이 깃들었습니다.

괴물의 불같이 각양 각색의 네온등이 희미하게 반짝이는 네거리에서 밤마다 헌 바요린을 켜며 노래 부르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자동차 공장 로동자의 아들인 아홉살 나는 죤입니다.

방직 공장 로동자였던 죤의 어머니는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갔습니다.

죤에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자동차 공장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기계에 치워 자리에 눕게 되였습니다. 그러자 자본가놈은 아버지를 공장에서 내 쫓았습니다.

한 푼의 돈도 없어 아버지는 병원에도 가 보지 못한채 누워계시였습니다.

《죽어도 병원 문 앞에라도 가서 죽었으면 한이 없겠다.》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한숨을 지으며 하시는 말씀을 듣는 죤의 가슴은 찢어지는듯 아팠습니다. 돈이라곤 단 한 푼도

후다닥 놀란 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말을 더듬거렸습니다.

《이놈 머슴 놈에게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

하고 지주 놈은 내 옷을 빼앗아 밖에다 팽가치고는 알 몸으로 앉아 있는 나를 막 넙다 차는 것이였습니다. 그 날 밤 나는 얼마나 피 눈물을 흘리고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나는 그 날 밤 일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농민들의 피를 그처럼 빨아 먹고 천대하던 지주놈에 대한 적개심이 가슴에 활활 타 오릅니다.

지주놈은 어떻게 하면 농민들의 피 땀을 더 많이 짜낼 것인가를 골돌히 생각해 내군 했습니다.

어느 날 개성에 갔던 지주놈은 자동차 한 대에 비료를 그득히 싣고 왔습니다. 그리고 소작인들을 불러다 놓고 크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비료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료 값은 어떻게 계산되는가요?》

《농사가 잘 되면 차츰 물게나.》

소작인들의 묻는 말에 지주 놈은 이렇게 배'속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가을이 되였습니다. 지주 놈은 며칠 동안 치부 책을 뒤지며 산판 알을 튕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주 놈은 나더러 급히 소 달구지를 메우라고 불호령을 쳤습니다. 그 바람에 나는 너무 급히 서둘러 작두질을 하다 그만 작두에 엄지 손가락을 끼워 잘리우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지주놈은 빨리 서둘지 않는다고 말을 타고 서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픔을 참아 가며 달구지를 끌고 처음 따라 간 곳은 김 호걸이라는 소작인의 집이였습니다.

《왜 아직까지 소작료를 안 바쳐 응?》

지주 놈은 말을 탄 채 마당에 들어 서며 소리 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만 금년엔 농사가 변변치 못한데… 소작료는 그저 절반만은 래년에 물게 해 주십시요.》

《이놈 소작료도 소작료고 비료 값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지주놈은 더 노기등등해졌습니다.

《비료 값만은 농사가 잘 되거들랑 차츰 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이놈아!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말이다 그래 안 물겠다는 말이지…》

《아니 올시다 그저……》

《잔말 말고 비료 한 가마니에 벼 여덟 가마니씩만 내라.》

《…벼 여덟 가마니라니요?! 그건 시장 값보다 곱이나 되는 걸요.》

《이놈아 실어다 준 값은 안 내고 그 동안 외상으로 준 리자는 안 물 작정이냐!》

말에서 뛰여 내린 지주놈은 우리들에게 벼 가마니를 실으라고 호령을 하면서 그 집 퇴'마루의 벼'가마니를 씩씩거리며 헐어 내렸습니다.

이 날 지주놈은 마을 소작인들의 집에 다니며 이렇게 소작료요, 비료 값이요, 종자 값이요, 소 부린 값이요 하며 1 년 피땀 흘려 지은 농민들의 낟알을 모조리 빼앗아 왔습니다.

지주놈의 이런 악독한 착취로 동창 마을 사람들은 푸대죽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 나갔고 더는 살래야 살'길이 없어 많은 농민들이 정든 고향을 버리고 어디라 없이 떠나 갔습니다.

이런 속에서 8.15 해방이 왔습니다. 농민들은 이제는 사람답게 살 세상이 왔다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였고 미국 놈들이 기여 들자 놈들은 리 승만 괴뢰 정권을 세우고 일제 때보다 더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지주놈은 더욱 권세를 부리며 소작인들을 마소처럼 부렸습니다. 이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나는 더 참을 수 없어 지주놈과 싸움하고 그 놈의 집에서 뛰쳐 나왔습니다.

나는 품팔이와 고무신 깁기, 솥 땜질 등을 하며 이 거리, 저 거리를 돌아 다니다가 6.25를 맞이하여 새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지금 공화국의 품에 안기어 행복한 살림을 누리는 나는 오늘도 암흑의 땅 남조선에서 미제와 살인 강도 박 정희 도당의 착취와 탄압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남조선 농민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쓰라린 과거를 잊지 않고 승냥이 미제를 이 땅에서 몰아 내고 남반부 동포들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금년도 알곡 500만 톤 고지 점령을 위해 모든 힘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개성 지구 판문군 동창리
독창 농업 협동 조합
신 종철

없는 처지에 어떻게 병원엘 갈 념이나 하겠습니까!

죤은 행여나 남의 짐이라도 들어다 주고 몇 푼이라도 벌어 볼가 했지만 그런 것도 좀처럼 맞다들지 않았습니다. 온 종일 돌아다니던 죤은 거리의 광고판에서 어느 병원에서 산 사람의 눈알을 산다는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자기의 눈을 팔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막상 병원엘 가서 눈알을 팔자니 그 아픔이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병을 고칠 단 한 가지 생각으로 이 뼈 속까지 스며 드는 아픔을 참았습니다.

(이 돈이면 아버지를 살릴 수 있겠지) 죤은 아픈 생각도 잊고 나는듯 집으로 달아 오고 있었습니다.

죤이 어둑 컴컴한 골목'길에 들어 섰을 때였습니다. 그는 갑자기 누군가 덥석 목덜미를 잡는 바람에 흠칫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거겠습니까. 죤의 앞 가슴에는 두 개의 권총과 한 개의 칼이 독사처럼 아가리를 벌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단을 만난 것입니다. 죤은 울면서 제발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사정했지만 허사였습니다.

강도놈들에게 눈 판 돈을 빼앗긴 죤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는 울던 눈물을 씻고 다시 병원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단 하나 밖에 남지 않은 오른 눈 마저 바칠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두 눈을 빼앗긴 죤이 이골목 저골목 길을 찾아 겨우 집에까지 왔을 때는 아버지의 몸은 벌써 싸늘하게 식어진 뒤였습니다.

이리하여 죤은 두 눈을 잃은 데다 의지할 곳 없는 고아가 되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에게 승냥이인 미국과 같은 악독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불쌍한 소년을 누가 돌봐 주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남달리 음악을 즐겨한 죤은 자기의 눈을 판 돈으로 헌 바요린을 하나 사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을 저주하며 원쑤를 미워하는 마음을 바요린에 담아 켜며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죤이 켜는 바요린 소리——

이 비분에 찬 소리는 광명한 해'발을 찾는 소리로 되여 오늘도 미국의 어느 거리에서 울려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 동화)

나는 호흡 기관의 대문 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숨 쉬는 호흡 기관의 대문이지요. 공기는 나를 거쳐 들어 오며 탄산가스도 나를 거쳐 나옵니다. 페에 들어 가는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쁜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을 동무들은 잘알 것입니다. 그것이 곧 감기를 전염시키는 병균이지요. 정말 작은 것이여서 30~40만 배로 크게 해야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답니다. 병균들은 늘 침 방울, 콧물 방울, 먼지와 함께 날개나 있는듯이 나에게로 날아 들어온답니다. 물론 나는 그것들이 들어 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문을 단단히 지킵니다. 나에게는 많은 털돌이 있어 병균을 묻혀 가지고 들어 오는 침 방울, 콧물 방울, 먼지들을 막아 버리지요. 그래도 몰래 기여 든 놈들은 점액(콧물)을 내여 하나 하나 붙잡지요. 병균이란 놈은 아주 지독한 놈이여서 그래도 뚫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의 점막 우에 있는 작은 섬모(눈에 보이지 않는 솜털)를 움직여 땅바닥을 쓸어 내듯이 재여드는 병균을 몰아 내지요. 그리고 또 혈관에서 백혈구를 내여 한 놈도 남김 없이 깨끗이 잡아 치우지요. 이리하여 그것들을 가래와 함께 밖으로 내 보냅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는 대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도 감기를 전염시키는 병균이 내게로 기여들지 못하게 항상 주의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대문을 잘 지킬 수 없게 되여 동무들은 자리에 눕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 나더러 문을 잘 지키지 않았다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구요? 이제 이야기해 드리지요.

요즘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해서 감기에 걸리기 아주 쉽습니다. 밖에 나갈 때 의복을 잘 입고 모자도 잘 써야 합니다. 운동을 한 후에 덥다고 해서 의복을 입는 것을 시끄럽게 여기지 마십시요.

추위는 우리의 혈관을 졸아 들게 하여 병균을 죽이는 백혈구를 내보내지 못하게 합니다. 또 밤에 잠 자는 방은 공기가 건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공기가 건조하면 나의 점액은 말라 버리며 나의 섬모를 붙여 버리기 때문에 섬모도 병균을 쓸어 내는 역할을 못 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병균은 제 세상이라고 활개치며 대문을 거쳐 호흡 기관으로 공격해 들어 갑니다.

소년단원 동무들!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까? 나는 코입니다. 나의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2, 3, 4월 위생 월간에 우리의 주위와 몸을 더욱 깨끗이 하며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해바라기 피마주 가꾸는법

☆ 해바라기 심기

(1) 해바라기는 무엇에 쓰는가?

해바라기 씨로는 우리들이 먹는 기름, 통조림, 빵, 과자 등을 만들며 비누와 뺑기 만드는 원료로도 쓴다.

줄기와 잎은 가축들의 사료로 먹이며 마른 줄기로는 종이도 만들고 천도 짠다.

(2) 해바라기는 어떤 땅에 심어야 하는가?

해바라기 가꾸는 데 제일 좋은 땅은 썩은 식물질이 많이 섞인 푸실 푸실한 곳이 좋다.

때문에 새로 일군 과수원과 뽕밭, 집 주위, 밭'머리, 길'가, 꽃밭 등에 심고 자급 비료를 많이 주면 잘 된다.

(3) 종자 준비

해바라기 종자는 잘 여문 것으로 골라야 한다. 그리고 골라 낸 종자는 해'빛에 2~3일간 잘 쪼여 소독하여야 한다.

(4) 제때에 심어야 한다.

해바라기 심는 시기는 섭시 5~6도의 기온이 알맞는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3월 20일 경부터 4월 중순까지의 기간에 심는 것이 제일 좋다.

(5) 심는 방법

이랑 너비를 70cm 정도로 하고 포기 사이를 35cm 정도로 하여 구덩이를 파고 잘 썩은 퇴비와 분토 등 비료를 매 포기에 1kg이상 넣고 부드러운 흙을 약간 그 우에 덮은 후 3~4알씩 종자를 놓고 다시 부드러운 흙을 5~7cm 덮어 주면 된다.

☆ 피마주 심기

(1) 피마주는 무엇에 쓰는가?

피마주 씨에서는 기름을 짜 내는데 그 기름은 추워도 잘 얼지 않으므로 기계와 비행기 기름으로 쓴다. 또한 비누, 합성 고무, 인쇄 잉크의 원료로도 쓴다.

피마주 잎으로는 피마잠을 기르며 줄기에서는 섬유를 뽑아 내여 그물과 바'줄, 방수포 등을 짠다.

(2) 피마주는 어떤 땅에 심어야 하는가?

피마주는 우리 나라 아무 땅에나 심고 거름을 많이 주어 잘 가꾼다면 잎과 씨를 많이 딸 수 있다.

그러므로 길'가, 철도 연변, 뜰악, 학교, 동'뚝, 산'비탈 등에 심으면 된다.

(3) 피마주 잎과 씨를 많이 따자면

(ㄱ) 때를 놓지지 말고 제때에 심어야 한다.

피마주는 땅을 갈아 번진 흙이 섭시 10도가량 일때가 좋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체로 4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심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일찍 심으면 잎도 많이 따고 씨가 잘 붙어 수확을 많이 거둘수 있다.

(ㄴ) 종자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종자 고르기는 먼저 바람에 더리워 무거운 것으로 고루고 거기에서 흠이 있는 것을 골라 낸 다음 섭시 20도가량 되는 미지근한 물에 15시간 담가 두어 가라 앉는 것만을 종자로 쓴다.

종자 고루기가 끝나면 2%의 포르말린 용액에 30~60분 정도 담가 소독한 다음 맑은 물로 씻어 곧 심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늘에 펴 놓아 물'기를 없이 한다음 심는다. 될수록 그날에 심는 것이 좋다.

(ㄷ) 퇴비를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대체로 매 포기에 자급 비료 600g 정도씩을 넣는 것이 좋다.

비료는 먼저 준비해서 잘 썩여서 써야 한다.

달리기 운동

지금 소년단 단체들에서는 《평양—보천보—백두산 봉화 달리기》 운동을 광범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운동을 하면 팔, 다리, 허리, 잔등 그리고 근육이 잘 발달하며 심장과 폐가 튼튼해 집니다.

그럼 달리기 운동에 필요한 몇 가지 지식을 동무들에게 소개합니다.

(1) 달리기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꾸준하게 하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하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달리는 속도는 처음부터 빠르게 할 것이 아니라 점차 빠른 속도로 하는 것이 좋고 거리도 짧은 거리로부터 먼 거리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2) 저고리는 벗고 될수록 몸을 간편하게 하고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3) 달리기 운동을 할 때에는 숨을 규칙적으로 쉬여야 합니다. 숨을 규칙적으로 쉬지 않으면 심장, 폐 등 여러 가지 기관에 해롭습니다.

(4) 달리기 운동을 끝낸 다음에는 갑자기 멈추어 서지 말고 점차 멈추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정리 체조(호흡 운동이나 간단한 팔, 다리 운동)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달리기를 할 때 긴장되였던 온 몸의 근육과 심장, 폐, 혈관 등 기관들을 풀 수 있습니다. 정리 체조를 잘 하지 않으면 몸이 무거워져 활동에 지장을 줍니다

호흡 운동

호흡 운동은 가슴을 활짝 펴고 천천히 길게 코로 숨을 들여 쉬여야 하며 숨을 내 쉴 때는 양팔을 몸 앞에서 엇 걸어 가슴을 조이며 입으로 내쉬여야 합니다. 소년단 체조, 인민 보건 체조의 호흡 운동을 해도 좋습니다.

호흡 운동은 우리의 몸에 필요한 산소를 섭취하여 줍니다. 호흡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호흡 기관의 기능이 발달하며 우리의 몸을 튼튼하게 하여 줍니다. 특히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흡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면 감기, 기관지염 등의 질병을 이겨 낼 수 있게 합니다.

아침 체조

아침 체조를 꾸준히 하면 매일 아침 제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맑게 해 줍니다. 따라서 하루의 생활을 명랑하고 유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체조를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1)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웃 옷은 벗고 될수록 옷차림을 간편하게 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침 체조를 할 때는 호흡을 원만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몸 속에 있던 나쁜 가스가 몸에서 나가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습니다.

(3) 아침 체조를 한 다음에는 랭수 마찰을 하는 것이 좋으며 산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림 이야기

조옥희 소년 자위대

이 이야기는 원쑤 미제를 반대하는 조국 해방 전쟁 시기 황해남도 벽성군 벽성 중학교 단 위원장 김 형봉 동무를 중심으로 한 송간리 마을 소년단원들의 반 간첩 투쟁 이야기다. 그때 송간리 마을은 3 8선과 가깝고 게다가 서해 바다를 낀 곳이여서 적들의 준동이 심했던 곳이다.

(1) 우리 인민 군대의 일시적 후퇴시기 마을에 기여들었던 원쑤 놈들의 만행을 직접 겪은 이곳 마을 소년단원들의 적개심은 누구 보다도 높았다.

인민 군대의 재 진격으로 원쑤들이 쫓겨 가고 고향 마을이 해방되자 당 단체의 지도 밑에 김 형봉 동무를 비롯한 소년단원 여섯 명으로 되는 소년 무장 자위대가 조직되였다.

(2) 활동은 시작 되였다. 여섯 동무는 저녁 마다 공부를 하는 한편 자위대 활동에 필요한 공부도 했다. 그들은 짬짬이 군 민청 위원장 형님을 찾아 가 항일 빨찌산 투쟁시기 아동단원들의 이야기와 함께 일시적 후퇴 시기 향토를 지켜 빨찌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벽성군 녀맹 위원장 조 옥희 영웅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다. 무장이 마련 되기 까지는 목총을 깎아 훈련하였다.

(3) 많은 소년단원들이 자위대에 들어 왔다. 대렬이 늘어 감에 따라 바다'가와 해주, 옹진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자위대 초소들이 배치되였다.

서해의 거친 물'결을 스쳐 불어 오는 겨울 바람은 모질기도 했지만 이들의 초소는 하루'밤도 비는 날이 없었다.

(4)그들의 활동이 시작된지 얼마 안되는 1951년 2월 21일 밤이였다. 이날은 밤 안개까지 껴서 앞을 분간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바싹 경각성을 높이고 경비를 서고 있었다. 그런데 별안간 바다'가에서 《빠작 빠작》 엷은 얼음장을 밟는 듯한 인기척이 났다. 때마침 신작로 쪽에서 지나가는 자동차의 불빛이 번쩍 바다'쪽에 비치였다. 그 바람에 시커먼 그림자 다섯개가 바다'쪽에서 기여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5) 그들은 곧 마을 세포 위원장 아저씨에게 련락을 보내고 다른 초소들에도 련락을 했다. 정작 적과 맞다드니 떨리기도 했지만 형봉 동무는 용기를 내여 침착하게 곧 전투 포치를 하였다. 적들은 멋도 모르고 다가 오고 있었다. 《땅…》 하고 형봉 동무의 총이 불을 토하자 사방에서 통조림 통들이 요란히 울리였다. 《섯 손 들엇!》 갈팡 질팡하던 적들은 인민 군대로 알았던 모양인지 총 한방 쏴보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말았다.

(6) 첫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군당에서는 이들 소년자위대의 성과를 높이 찬양하고 공화국의 첫 녀성 영웅이며 군 녀맹 위원장이던 조 옥희 영웅의 이름을 붙여 주었다. 기세 충천한 이들 자위대원들은 더욱 용감하게 원쑤와 싸워 이겨 사랑하는 고향 마을을 지킬 새로운 결의에 용솟음쳤다.

(7) 그들의 활동은 밤낮으로 진행되었다. 록음이 짙어가는 1951년 초여름 학교에서 돌아 온 대원 박 수만 동무는 수양산에 나무를 하려 갔다. 가던 도중 외딴 집에 물을 얻어 마시려 들어 갔다가 뜻하지 않게 머리가 텁수룩한 낯선 사나이를 보았다. «저놈이 간첩이 아닐가?» 경각성 높은 그는 그 달음으로 슬쩍 딴 길을 에돌아 자위대 본부에 와 알렸다.

(8) 소식을 받은 이들 자위대원 16명은 형봉 동무의 지휘하에 이 놈을 감쪽같이 붙잡을 작정으로 몰래 외딴 집을 포위해 들어 갔다. 죄여 들어 가 보니 그 놈은 벌써 달아나고 없었다. 그러나 경각성 높은 이들은 끝내 집 뒤 밭 가운데 돌각담 밑에서 다섯 놈의 반동을 잡아 내고야 말았다. 이 놈들은 미처 도망치지 못한 «치안대»와 악질 반동들이였다.

(9) 이들의 줄기찬 투쟁은 계속되었다. 밤에는 고향 마을을 지키고 낮에는 한 사람의 결석도 없이 학교에 나갔다. 자위대 사업이 활발해 가자 어머니 누나들의 도움으로 마을 앞 제방 밑에 멋진 반 토굴식 자위대 본부를 지었다. 저녁이면 여기서 공부도 하는 한편 경비를 섰다. 점점 대렬도 늘고 무기도 늘어 자위대 사업은 강화 되여 갔다.

(10) 매일 저녁 형봉 동무는 세포 위원장 아저씨에게서 받은 과업을 동무들에게 분공하여 초소에 배치하군 하였다.

하루는 밤이 이슥해졌는데 수양산으로 통하는 비둘기 초소로부터 수상한 할머니가 산으로 들어 가는 것을 발견했다는 급보를 받았다. 그들은 곧 그뒤를 따랐다.

(11) 동리 뒤를 돌아 오솔'길로 접어 든 로파는 그들이 뒤 따르는 줄도 모르고 두리번 두리번 주위를 살피면서 산'골짜기로 들어 가는 것이였다. 이윽고 무시무시한 숲 속을 헤치고 들어 가더니 어둠 컴컴한 굴속으로 슬쩍 살아 지는 것이였다. «틀림 없구나! 련락 오는 것이, 어제도 이웃 마을에 내려 와 사람을 잡아 갔다더니 이놈들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12) 형봉 동무는 재빨리 대원들을 포치하고 나서 용기를 내여 굴아구리로 다가 갔다. «팡!» 하늘에 대고 공포를 한방 쏜다음 «이놈들아! 당장 나오너라!» 하고 소리를 질렀으나 놈들은 꼼짝하지 않았다. (곤난에 부닥쳤을 때일수록 침착하고 용감해야 한다.) 그들은 묘책을 생각해 냈다. 솔'가지를 꺾어다 굴 아구리에 불을 질러댔다. 연기는 뭉썬뭉씬 굴로 들어 갔다.

(13) 이슥해서 굴 속에서 재채기 소리가 련거퍼 들리더니 세놈이 손을 들고 나왔다. «꼼짝 말아 쏜다.» 대원 용흡 동무가 끈으로 묶으려고 들자 놈들은 그제야 어린 아이들의 계교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용을 써 보려고 하였다. «팡 팡!» 형봉이와 익근이의 보총이 한꺼번에 불을 토하자 놈들은 옴짝 못하고 묶이우고 말았다. 이날 이들은 보총 2정과 인민들에게서 빼앗아 간 식량 여러 말을 로획하였다.

(14) 그후 인민들의 자위대 사업이 강화되자 적들은 교활한 방법으로 간첩을 들여 보내 보려고 미쳐 날뛰었다. 하루는 마을에 이상한 굴 장사가 나타났다. 정보를 받은 형봉 동무는 일부러 굴 장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15) 뒤따라 들어 오며 거동을 보니 장사를 하는 녀자치고는 몸맵시와 걸음새, 손 모든 것이 어울리지 않았다. «아주머닌 어디서 오셨나요?» «취야서 왔소.»(방금 정기 동무네 집에서는 옹진서 왔다드니?!) 그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아주머닌 뭘 못해서 이런 굴장사를 하나요?» 하고 다시 캐 묻자 그는 집의 아이들이 기다리겠다고 얼버무리며 급히 돌아 가려고 했다.

(16) 형봉이는 동무들을 뒤따르게 하고 곧 취야 내무서로 연락을 보냈다. 붙들어 조사해 보니 아니나 다를가 우리의 군사 비밀을 탐지하려고 바다로 기여 든 녀자 간첩이였다. 소년 자위대원들은 그 후에도 «인민 군대», «농민», «학생» 등 별의별 방법으로 가장하고 들어 오는 간첩들을 잡았다.

(17) 조 옥희 소년 자위대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 3년 동안 사랑하는 고향마을을 지켜 연 45회의 전투에서 악질 반동을 포함한적 간첩 54명을 체포하였다.

그리하여 최고 인민 회의 상임 위원회로부터 중대장 형봉 동무는 국기 훈장 3급을 비롯하여 2개의 군공 메달을, 박 용흡, 김 익근, 안 기화 동무들은 각각 군공 메달을 수여 받았다. 또한 김 형봉 동무와 박 용흡 동무는 중앙 모범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니였다.

가야금 타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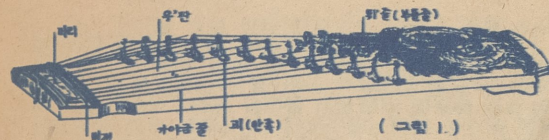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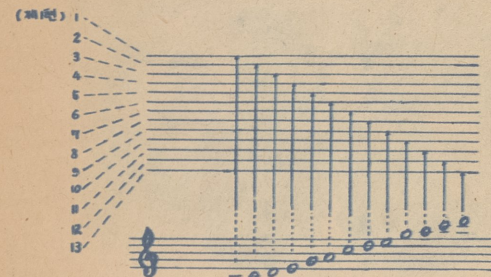
오늘 우리 인민이 가장 사랑하는 민족 악기—가야금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가야국(지금 경상남도 지방)에서 천재적인 우리 나라 음악가이신 우룩이란 할아버지가 만드신 악기이다.

가야금은 어느 악기보다도 예로부터 우리 조선 인민들의 생활 속에서 발전하여 왔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우리 인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악기 중 하나로 되고 있다. 그러면 실지 가야금은 어떤 악기이며 어떻게 타야 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1. 가야금의 각 부분의 명칭

가야금은 원래 오동 나무 판으로 된 위'판과 감 나무로 된 뒤'판으로 만들어지며 줄은 명주실을 여러 겹으로 꼬아 만든다.

가야금 각 부분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2. 가야금 줄 맞추는 법

우의 그림과 보표를 잘 보고 줄을 맞추는데 그 방법은 먼저 1 현(첫 줄) 《쏠》부터 제 7 현—가운데 《도》 줄까지를 음의 차례로 맞춘다. 그 다음 제 1 현 《쏠》 줄과 제 5 현 《쏠》 줄을 번갈아 제 1 번 엄지 손가락과 제 3 번 가운데 손가락으로 줄을 걸어 소리를 내여 《쏠》을 맞춘다. 다음은 제 2 현 《도》 줄과 제 7 현 《도》 줄, 그 다음은 제 3 현 《레》 줄과 제 8 현 《레》 줄, 제 4 현 《미》 줄과 제 9 현 《미》 줄 이런 순서로 제 13 현까지 모두 맞춘다. 줄이 대체로 맞았다고 생각될 때 제대로 되였는 가를 검사하기 위해 제 1 현 《쏠》 과 제 5 현 《쏠》은 다섯 줄만에, 그다음 《도》 줄부터는 여섯 줄만에, 각각 쏠, 도, 레, 미, 쏠, 라, 도, 레, 순서로 줄을 걸어 음정을 정확히 맞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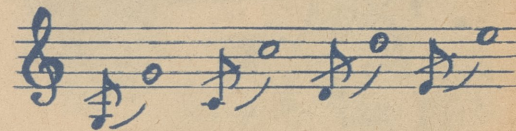
3. 가야금에서 기본 수'법들

수'법 훈련에 들어 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오른 손이 기본 수'법 훈련에서는 가야금 벼개 (그림 1)에서 안으로 들어 와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벼개를 의지하고 손을 놓아야 팔의 긴장을 풀 수 있기 때문 이다.

1. 사랭 련습

엄지 손가락과 세째 손가락으로 옥타브 간(《도》에서 《시》까지의 일곱 계음 사이)의 음을 함께 걸어 내는 수'법이다.

그림 1

그런데 주의할 것은 두 줄을 함께 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세 째 손가락으로 그 다음 옥타브 위'줄을 걸어 탄다.

즉 (그림) 이런 경우의 연주이다. 수랭 수'법의 특성은 같은 음의 두 줄을 거의 동시에 울림으로써 더욱 박력 있는 효과를 얻는 것이다.

2. 뜯음질 련습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합하여 줄을 뜯어 음을 내는 수'법이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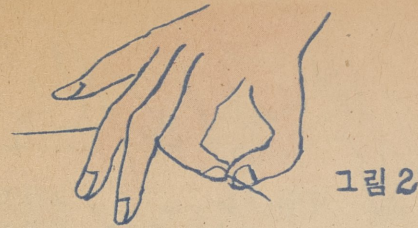



그림 2

뜯음질 수'법은 가야금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어느 음에서든지 보다 세게하며 예리한 음의 효과를 얻기 위한 수'법이다. 가야금을 처음 배울 때는 이 수'법에 힘을 많이 들여야 한다. 이 수'법 휴련을 위하여 제 1 현 《쏠》부터 1~3 현까지를 차례로 오르 내리면서 천천히 련습해야 한다.

(례곡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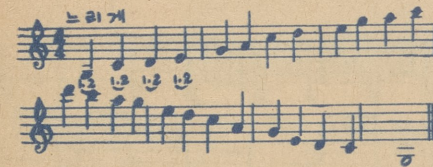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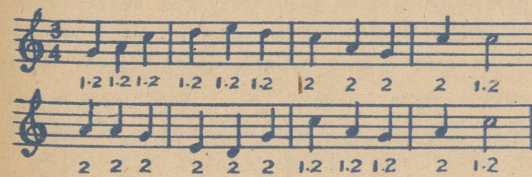
3. 뜸질 련습

둘째 손가락으로 줄을 떠서 음을 내는 기본 수'법이다. (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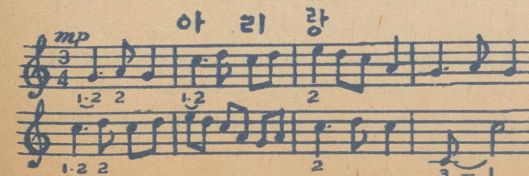
그림 3

이 수법도 뜯음질과 같이 가야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뜯음질보다더 부드럽고 우아한 음색을 얻는다. 뜸질 수'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손가락을 걸 때에 괘 소리가 나지 않게 련습하는 것이다. 아래의 악보에 근거하여 뜯음질과 뜸질 련습을 해 보자.

(례곡 2)

이번에는 아리랑을 우의 세 개 수'법을 써서 련습해 보자

(례곡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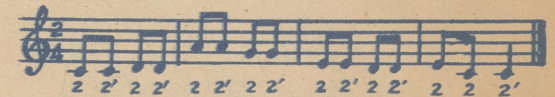
아 리 랑

투김질 련습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합하여 힘을 모아 준비하였다가 둘째 손'가락으로 투겨서 소리를 내는 기본 수'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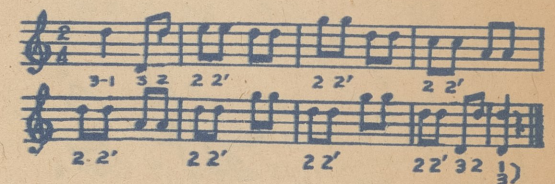
(그림 4)

그림4

투김질 수'법은 악곡 진행 중 같은 음이 두 번 이상 련속될 때에는 반드시 엇바꾸어 투김질을 한다.

(례곡 4)

투김질을 써서 아래의 련습곡을 공부하자.

(례곡 5)

5. 미닥질 련습

둘째 손'가락으로 첫 음을 떠서 내고 (그림 5 의 1) 곧 세 째 손'가락으로 바로 아래 줄을 떠서 내는 (그림 5의 2) 기본 수'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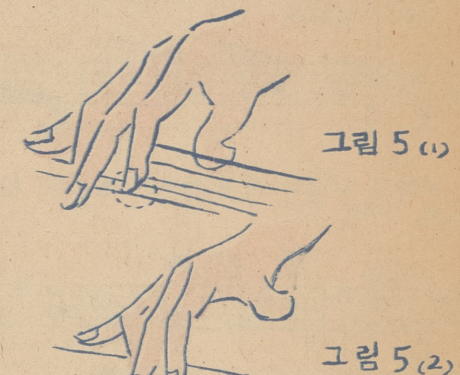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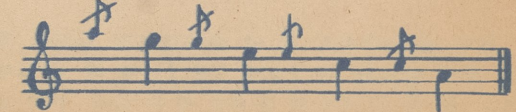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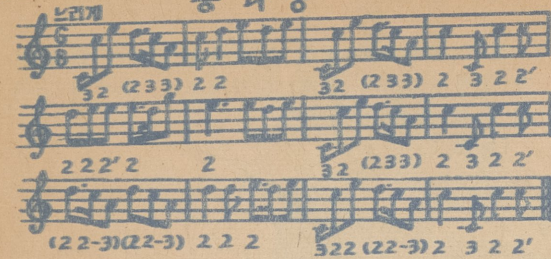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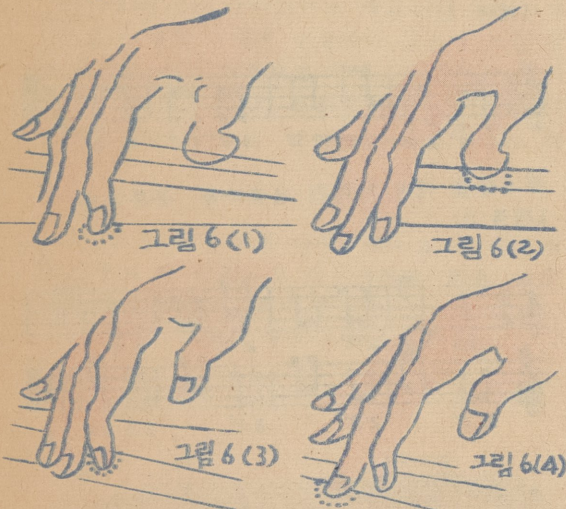



그림 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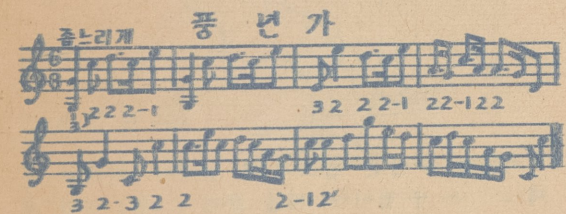
그림 5 (2)

미닥질 수'법은 반드시 음 진행이 아래로 될 때 쓰이는 수'법이다. 례를 들면 (그림) 이런 경우에 미닥질이 쓰인다.

미닥질을 써서 아래의 곡을 련습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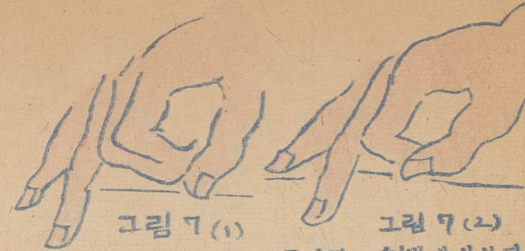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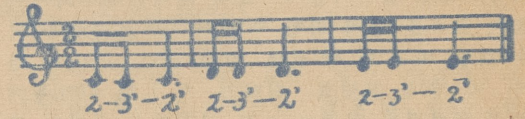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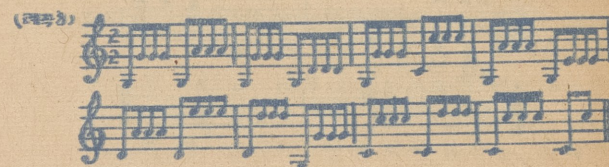
6. 집엄질 련습

처음 둘 째 손'가락으로 떠서 음을 내고 (그림 6의 1) 다음 엄지 손'가락으로 줄하나를 뛰어 웃줄의 음을 낸다. (그림 6의 2) 그 다음 음을 낸 후 즉시 중간 줄 우에서 그의 운동을 멈춘다. (그림 6의 4) 세 째 손가락은둘 째 손가락이 낸 음을 막는 수법이다. (그림 6의 3)

집엄질 수'법은 미닥질과 반대로 음 진행이 높은 음으로 올라 갈 때 쓰이는 수'법이다. 례를 들면 (그림)

이런 수'법이다.

집엄질 수'법을 써서 아래의 민요를 련습 해 보자. (례곡 7)

7. 량지 투김질 및 도리뱅이

엄지 손'가락에서 세 째 손가락까지 합하여 힘을 모아 준비한 후 (그림 7의 1) 세 째 손'가락에서 둘 째 손'가락의 순서로 같은 줄을 투겨 같은 음을 내는 수법이다.

이 두 손가락 투김은 투김질 수'법에서보다 한 음 더 투겨서 내는 것이다.

2-3′-2′ 2-3′-2′ 2-3′-2′

아래의 련습곡을 두 손가락 투김질 수'법으로 련습해 보자.

이상 가야금의 기본 수'법 일곱 가지를 소개하였다. 이 밖에도 가야금에서는 특수 수'법으로서 《홑음질》, 《엄지 미닥질》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수'법들은 가야금 산조에서나 고전 음악을 연주할 때 쓰이는 수법이므로 가야금을 처음 배우는 동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민족 악기 가야금 연주에서는 오른 손 훈련을 위한 우의 일곱 가지 수'법 외에 중요하게 왼 손 훈련을 잘 해야 한다. 다음으로 왼 손 롱현법에 대하여 간단히 이야기 하자.

롱현이란 줄을 희롱한다는 뜻으로 두 가지 의의를 가진다. 즉 그 한 가지로는 오른 손에 의해서 울리는 줄을 거의 같은 시간에 아래 우로 흔들어 음을 진동시키는 작용과 또 한 가지는 왼 손으로 줄을 눌러 음정 상 음색 상의 변화를 가져 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롱현 훈련을 위해서는 왼손 둘째와 세 째 손'가락을 모아 줄 위 (괘로부터 약 6 센치)에 손'가락을 세워 자연스럽게 놓고 팔목에 힘을 주지 말고 왼 팔 전체에다 적당히 힘을 주어 흔든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왼 팔에 긴장이 가서는 절대 안된다. 왜냐하면 왼 팔에 긴장이 가면 발발성이란 버릇이 붙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긴장 된 팔로서는 비교적 빠른 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야금 롱현은 매 음에 따라 그 흔드는 정도가 다르다. 즉 우리 조선 음악에서는 《도》에서는 그리 많이 흔들면 안되며 대신 《쏠》 음에서는 아주 깊고 무겁게 흔들어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줄에서는 《쏠》에서 보다 좀 가볍게 흔들어 《쏠》 음을 대신하리만큼 롱현이 수행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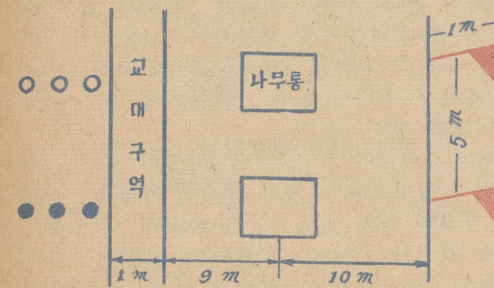
이상의 자료는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 어린 동무들에게 가야금 연주의 극히 기초 지식의 일부를 전달했을 뿐이다

오 락

어떻게 달릴가?

1. 유희 조직

① 유희자들을 같은 수로 두 편으로 나눈다.
② 두 개의 나무 통에 여러 가지로 달리는 방법을 기입한 카트를 유희자 수에 맞게 준비한다.

2. 유희장 및 유희자의 배치는 그림과 같다.

3. 유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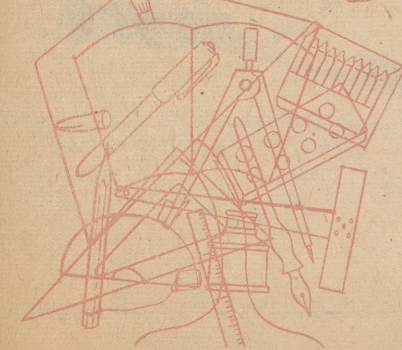
① 지도자의 신호에 의하여 각편의 선두 유희자는 앞으로 달려 가 통 안에 있는 카트를 하나 뽑아 그곳에 기입되여 있는 방법 대로 귀환점까지 가서 기'발을 돌고 교대 구역까지 달려 와 다음 유희자와 손'바닥치기로 교대한다.

카트에는
㉠ 뒤로 달리기,
㉡ 모둠발 뛰기
㉢ 앵금 발 뛰기
㉣ 캬로핑 스텝
등으로 기입한다.

② 이런 방법으로 유희를 계속하여 먼저 끝난 편이 승리자로 된다.

카트에 기입된 방법과 어긋나게 했을 때에는 다시 시킨다.

유희를 끝마친 유희자들은 자기 줄 뒤에 정렬한다.

속 담

(1) **열흘 나그네 하로'길 바빠한다.**
아직 날자가 있다고 늦장을 부리지 말고 그날 그날 부지런히 일을 해야 기일이 보장된다는 말.

(2) **첫 술에 배부를가.**
단 한술 밥으로 배가 부를 수 없는 것처럼 무슨 일이고 여러 번 반복하여야 능숙하게 된다는 말이니 처음 배우는 사람이 대번에 잘 알기를 바랄 때 이르는 말.

(3) **만리'길도 한 걸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아주 굉장한 큰 일도 그 시초는 보잘것 없는 미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여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드디여는 놀랠만한 결과를 가져 온다는 말이다.

(4) **말 가는 데 소도 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남도 할 수 있다는 말. 또는 빠르고 늦은 차이는 있더라도 한 사람이 하는 일이면 다른 사람도 노력하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말.

(5) **정성이 지극하면 돌 우에 풀 난다.**
성심 성의로 일을 하면 기적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말이다.

몇개일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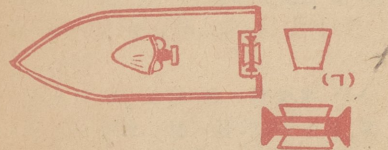
이 개들은 무엇을 노릴가요?

10 호 현상 문제 답 및 당선자

☆ 현상 문제 답

① 양철판으로 그림 ㄱ과 같이 날개 4 개를 만든 후 그것을 실토리에 꽂는다.

② 실토리 구멍에 축과 철선 (직경 1~2 mm 정도의 강철 선)과 함께 고무 줄을 끼운다.

③ 실트리의 량 구멍으로 나온 축과 고무 줄을 배의 량끝에 못으로 고정시킨다.

☆ 당선자

량강도 갑산군 오일 중학교 김 용정
평남도 대동군 반석 중학교 리 일량
평양시 대동강 구역 문수 중학교 정 병연

★ 11 호 현상 문제 답 및 당선자

☆ 현상 문제 답

(1) 《어린 혁명 전사들》에서 《빨찌산의 딸》이란 제목으로 조 정철 선생님이 쓰신 글이며 아동단원 정 만금이가 놈들에게 잡혔다 나오면서 한 결심입니다.

(2) 《어린 혁명 전사들》에서 《나는 이렇게 혁명의 대렬에 섰다》라는 제목으로 리 오송 선생님이 쓰신 글이며 허리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내두산까지 행군하는 도중 유격대 아저씨들이 그 때 아홉살 잡힌 고아였든 오송 선생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선자

함북도 회령군 회령 중학교	채 남송
함남도 함흥시 함흥 중학교	지 순자
함남도 광천군 가용 인민 학교	김 태수
평남도 덕천군 수하 중학교	변 창숙
황남도 청단군 소정 중학교	유 옥선
황북도 은파군 전산 중학교	최 병희
강원도 회양군 강돈 인민 학교	송 은자
자강도 화평군 회중 중학교	리 승일
자강도 고풍군 고풍 중학교	리 미훈
평양시 랭천 중학교	김 명원

12 호 현상 문제 답 및 당선자

☆ 현상 문제 답

바람이 부는 겨울 날씨에 몹씨 춥게 느끼는 것은

첫째로, 사람의 몸에 의하여 더워진 공기가 새로운 찬 공기와 교체되는 것이 그리 빠르지 않은 바람 없는 날씨에 비하여 몸에서 훨씬 많은 열을 빨리 빼앗기기 때문이다. 바람이 세면 셀수록 우리의 피부에 닿는 공기의 량은 더 커지며 따라서 우리의 몸에서 빼앗기는 열은 그만큼 더 많아 진다.

둘째로, 우리의 피부는 추운 공기 속에서도 수분을 증발하는데 이러한 증발에 필요한 열을 우리 자신의 몸과 몸에 닿은 주위의 공기층이 빼앗는 것이다. 공기가 움직이고 피부에 새로운 공기들이 닿게 된다면 언제나 더 많은 증발이 계속되고 따라서 우리 몸에서는 계속적으로 더 많은 열을 내보내게 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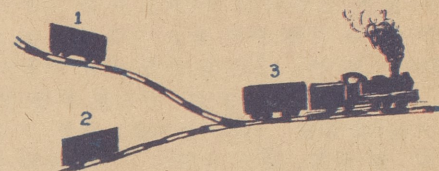
☆ 현상 문제 당선자

평북도 대관군 남서 중학교	김 세웅
개성시 남산 중학교	리 정자
황북도 은파군 교송 중학교	리 기순
평남도 숙천군 대성 중학교	오 대봉
평남도 강남 고급 중학교 초급반	김 귀호
강원도 원산시 원남 중학교	최 정희

☆ 3호 현상 문제

그림과 같이 차량 1, 2, 3이 놓여 있고 기관차가 있다.

이제 차량 1과 2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될가요.

＊ 기관차는 차량을 두 개 이상 더 련결시킬 수 없다.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소년 잡지
《소년단》 1962년 제 3 호 (총 149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민 청 출 판 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30082 값 25 전 150,000부 발행

토끼 기르기

☆ 토끼 새끼를 많이 낳게 하자면

(1)종자로 쓸 수토끼와 어미 토끼를 좋은 몸으로 골라야 한다.

우선 몸이 튼튼하고 품질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자기 지방의 기후에 맞고 자기'지방 사료를 먹고 자라난 것이 좋다.

어미 토끼는 한 배에서 많은 새끼를 낳으며 젖이 많이 나는 종자를 골라야 한다.

종자 수토끼는 크고 힘이 센 것을 골라야 한다.

(2)제때에 쌍을 얹어야 한다.

그러자면 암내가 언제 일어 나는가를 잘 알아야 한다.

토끼는 보통 나서 4~5개월 된 후에 암내가 일어 난다. 이 때 암토끼는 사료를 잘 먹지 않고 불안해 하며 허리를 가볍게 누르면 허리를 펴면서 꼬리를 든다. 또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땅을 파 헤친다.

새끼 낳은 후 첫 암내는 1～3일만에 일어 나며 다음 암내는 13~21일 만에, 그 후부터는 1 주일을 전후하여 한번씩 일어 난다.

암내는 보통 3~5일간 계속되므로 쌍 얹기는 이 기간에 쌍을 얹어야 한다. 쌍 얹을 때는 암토끼를 수토끼 상자에 넣어 시키는 것이 좋다.

(3)다음과 같은 때에는 새끼를 배지 않는다.

ㄱ. 암토끼와 수토끼를 한 상자에 오래 넣어 길렀을 때.

ㄴ. 암토끼를 오래'동안 쌍 붙이지 않고 상자에 넣어 두었을 때.

ㄷ. 암토끼가 너무 여위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살 졌을 때.

ㄹ. 겨울철 사료에 광물질과 비다민이 적었을 때.

ㅁ. 병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고 모든 암토끼가 새끼를 배도록 잘 키워야 한다.

(4)어떤 때 죽은 새끼를 낳게 되는가.

새끼 밴 암토끼를 놀래우거나 암토끼의 귀를 잡아 이동하였거나 겨울에 언 사료, 썩은 사료, 찬물 등을 먹였거나 기타 관리를 잘 못하였을 때 죽은 새끼를 낳는다.